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8월 15일(음력 7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641 호

불교문학·영상 '결합코드' 무엇?

현대불교문인협회 만해축전서 심포지엄
'만다라' '오세암' 등 학술적 접근 '신선'



2007만해축전에서 불교문학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다양하게 개최된 가운데 불교문학과 영상문화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새롭게 시도돼 눈길을 끌었다.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가 8월 12일 만해마을 강당에서 개최한 '불교문학과 영상문화'를 주제로 한 불교문학 심포지엄에서 <만다라> <동승> <오세암> 등 세 소설과 그것을 영상화 한 영화들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명환 홍익대 강사는 '한국 불교소설과 영화, 그 '색탐'의 변천사-50년대 이후 영화에 나타난 부처 이미지를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 대중소설은 '원효대사' '사명대사' 등 대개 원력 높은 비구 스님들의 이야기에 집착해 왔다"며 "영화도 이런 추세였지만 90년대 초에 들어와 최근에 이르기까지 비구니와 동자승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게 변천해 왔으며 이는 시대적인 문화 환경의 변화와 관계 지어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교수는 "앞으로의 영화에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비구니들의 진솔한 보살행과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갖고 무미건조한 매트릭스 시대의 윤회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처럼 버림받고 있는 작은 동물들, 또한 몸을 버려 부처가 된 물고기, 개구리, 꽃 외에 소탈한 스님의 성불 얘기 등도 얼마든지 영화와 소설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불교 영화가 다양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임권택의 영화 '만다라'에서는 만다라의 시각적인 재현을 만다라라는 상징성보다 사람관계에서 기인한 구체적인 삶의 진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이는 소설 <만다라>속에 나타난 종교적인 수행과정을 통해 영화인으로서 점진적인 자기 수행의 과정과 영화의 미학을 실현해 가는 자기완성에로의 길에 비춰보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만수 인하대 교수도 "영화가 원작 희곡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원작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오히려 영화로서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문학작품의 영화화 대부분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경중의 영화 '동승'이 함세덕의 희곡 '동승'과 다르다는 점은 그리 탓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예술성과 흥행성을 가진 영화로서 얼마나 성공했고 희곡과는 어떻게 다른 영화적 미학을 보여 주었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주경중의 영화 '동승'은 원작 희곡에 비해 약간의 과장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공사상을 잘 표현해 우리를 넉넉한 산책의 사유로 잘 이끌어 주었다"고 칭찬했다.

배봉기 광주대 교수는 동화 <오세암>과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비교를 통해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동화 <오세암>의 정서중 특히 멜로적 감상성을 예술적으로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동화는 비록 관념성의 부담은 있더라도, 거지 남매의 비극적 운명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미덕을 보여주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이들의 비극을 개별적 상태의 멜로적인 감상과 통속으로만 처리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동화 <오세암>이 영상 예술인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되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했다면 동화의 장점은 끌어안으면서 부담되는 관념성은 영상 속에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남북정상회담 환영" 한 목소리

한국불교종단協·불교계 단체 등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해 불교계 각 종단 및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해결에 큰 힘을 제공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도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이타회도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가 남북한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8월 8일 신임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만나야 가까워진다. 잘 된 일이다"라고 축하했다.

김원우 기자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 763-2980
종로,서초,방배,송파,안산



'일터'로 향한 마음 "나이는 숫자일뿐"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취업은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관장 고재옥)은 8월 10일 은평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소식과 함께 복지관 내 강당에서 '어르신 취업 한마당'을 열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여개 업종의 17개 구인업체가 참가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의 채용신청을 받았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社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꿈 펼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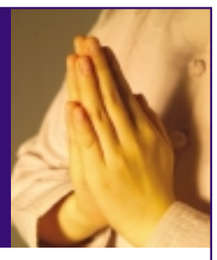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031)387-5400|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홍보 강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제대학원·어학당 등에 '찾아가는 마케팅' 시도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케팅을 벌인다. 이른바 '대상마케팅'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홍보 및 참가자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대상마케팅을 통한 템플스테이 홍보와 외국인 단체 참가 증가를 올해 주요 사업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1차로 국내 국제대학원 및 어학당 16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5개 및 국제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템플스테이 사업제안서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한다. 사업제안서에는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한 PPT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홍보영상물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사업제안서 등 3가지가 포함된다.

사업제안서와 PPT 자료에는 템플스테이 사업과 프로그램 유형 소개 및 각 프로그램별 가능 사찰, 일정표, 예약 방법 및 연락처, 전국 73개 운영사찰 목록이 들어가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에 중점을 두고 내용이 구성돼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홍보 영상물은 사업단의 문화센터 건립팀, 템플스테이팀, 문화컨텐츠팀의 역할과 업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대상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외국인 교육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정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템플스테이를 홍보할 수 있는 해외 홍보의 인적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2011-1970~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외국어 진행이 가능한 사찰

지역		사찰명	적정수용인원	시기	프로그램 유형
인천	강화	연등국제선원	20	주말, 상시	수행형
충남	유성	자광사		주말, 상시	수행형
경북	경주	골굴사	100인 이상 가능	주말, 상시	불교문화체험형
	봉화	축서사	100	주말, 상시	

●지역별 추천 사찰

지역		사찰명	적정수용인원	시기	프로그램 유형
경기	양평	용문사	30	상시, 주말	수행형
	여주	신륵사	30	주말	기본형, 전통문화체험형
	강화	전등사	30	주말	수행형
충남	공주	갑사	30~40	상시, 주말	기본형,불교문화체험형
	공주	마곡사	40	주말	기본형
전북	김제	금산사	50	주말	기본형,휴식형, 수행형,생태체험형
	부안	내소사	30	주말	수행형, 생태체험형
경북	김천	직지사	100인 이상도 가능	상시, 주말	수행형, 불교문화체험형 전통문화체험형
	경주	기림사	30	주말	휴식형, 전통문화체험형
	봉화	축서사	100	상시, 주말	수행형
	경주	골굴사	100인 이상 가능	상시	불교문화체험형
경남	합천	해인사	30~40	주말	휴식형, 불교문화체험형
전남	해남	미황사	30~40	주말	수행형, 휴식형
	해남	대흥사	40~45	주말	수행형, 불교문화체험형 전통문화체험형
	구례	화엄사	50~70	상시, 주말	수행형, 불교문화체험형 생태체험형
	순천	송광사	20	상시, 주말	휴식형, 기본형 불교문화체험형
강원	평창	월정사	35	주말	기본형, 수행형
	동해	삼화사	30	상시, 주말	휴식형, 기본형

울릉도 물들인 '독도 아리랑' 열기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 '회당문화축제' 개최



회당문화축제 개막 공연이 8월 2일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진각종은 창종 60주년을 맞아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2007 회당문화축제 '비상 코리아'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는 8월 2일 도동항 특설무대 주변에 관광객과 울릉군민 30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각복지재단 산하 울릉군립 꿈나무 어린이집 원아들의 깜찍한 율동으로 무대를 열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올해 회당문화축제의 주제인 '비상 코리아'는 울릉도와 독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어나가고 있는 울릉군민과 부대원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주제"라며 "회당문화축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공연에서는 울릉도 출신의 J&C 안단테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으며, 장군밴드의 재즈공연, 타악팀 살판, 비보이팀 유니버셜 크루, 동물원, 안치환씨의 공연이 펼쳐졌다.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택하고 있는 회당문화축제는 올해도 행사기간 내내 도동항 소공원 일대에서 '독도사진전'을 개최했으며, '독도의 날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소원지 쓰기, 천연염색, 독도사랑 전각탁본과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마당도 열렸다.

김원우 기자

관음사 사태 관련자 심리 연기

회주 중원 · 前 주지 용주 스님 등 불출석

제주 관음사 사태와 연관된 9명의 심리가 8월 1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조계종 조실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8일 제51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 용주 스님 등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으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호계원법 11조 "호계원의 심리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7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심판부에는 前 주지 용주, 前 재무부장 유정,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 등 4명만 출석했다.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성국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에 '변상금 16억원(2년 이내)'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적'에 '변상금 16억원'을 요청한 호법부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법타 스님에게는 '심리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사회법의 결심공판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8월 17일 열리는 제51차 심판부에서도 심리연기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교임·전법사 임원 회의

태고종 전국교임 및 전법사 임원회의가 8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임 · 전법사 임원들은 △종단 방침과 지시대로 수행 △조직을 총무원에서 직접 관리 △전법사의 교육 강화와 전문적인 포교사로서의 역할증대를 위해 전국 교임특별교구 독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에 건의했다.

한편 교임 · 전법사 총회는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9호 6면 부산 광성사 주지 소남 스님 인터뷰 중 '드레풍 라뙤 사원에서 10년간의 호법 소임'을 '드레풍 라뙤 사원에서 10년간 가르치고 1년간의 호법 소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조계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 이달 31일

봉선사도 산중총회 개최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8월 31일 오후 2시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린다.

산중총회는 현 방장인 보성 스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남양주 봉선사도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8월 31일 오후 1시 봉선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은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남동우 기자



관음종은 8월 6일 총무원에서 법계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관음종 스님 124명 법계증 수여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8월 6일 총무원에서 승가고시를 통과한 124명의 스님들에게 법계증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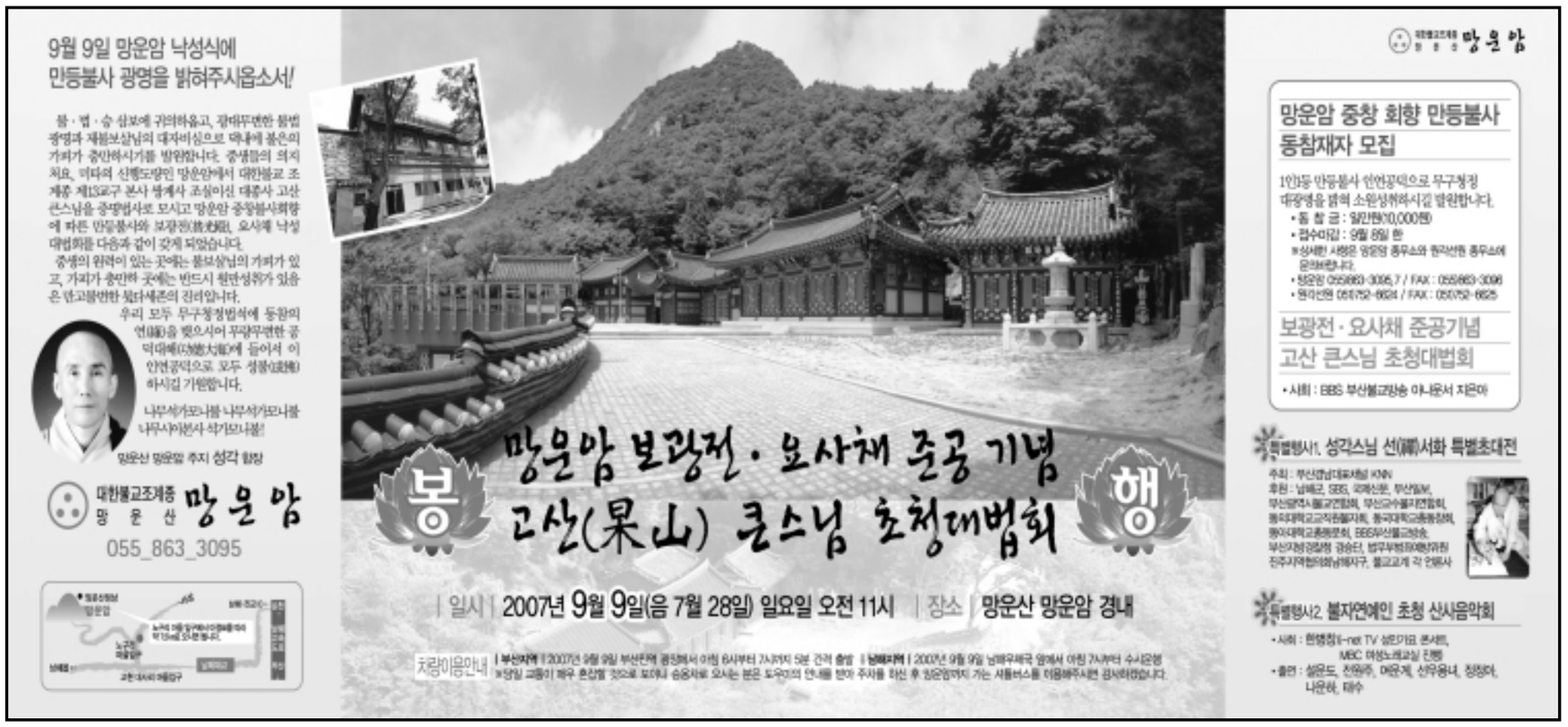
이날 법계증을 받은 스님은 대종사 6명, 대선사 2명, 종사 7명, 선사 5명, 종덕 53명, 대덕 51명이다.

관음종은 이와 함께 종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가사불사 점안식도 거행했다. 관음종 가사는 색깔은 연한 적갈색으로 하고, 문양은 둥근 테두리에 일반 옴자와 관음종의 전통 옴자가 새겨져 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울산지사 : (052)272-0909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문의 : 02-2004-8279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홍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8월 15일 광복 62주년

좋은 세상 오도록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3·1운동 참여한 104세 독립운동가 유정 스님



"이 먼데까지 뭐하러 와. 곧 죽을 늙은이에게 뭐 들을 게 있다고."

3.1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투사 중 최고령 생존자로 알려진 유정(104) 스님(양평 용수사 주지 · 사진)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스님의 독립정신을 배우고 싶다며 1시간여 동안 간청을 드리자 스님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니들이 나라잃은 슬픔이 뭔지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쯧쯧~."

유정 스님은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며 타박부터 시작했다. 스님은 1919년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았던 유관순 열사와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인물. 항일운동하던 오빠 한 명이 일본인 건물에 불을 지르다가 투옥된 뒤 식구들은 고향인 서울 종로구 적선동을 등지고 일본 경찰을 피해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이 와중에 유정 스님은 친척이 많이 살고 있던 천안으로 숨어들었던 것.

"사람들이 동천 마당에서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 때는 거기(아우내)를 동천이라 불렀거든. 가보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더라구. 내가 그 나이에 무슨 혁명투사나 독립투사였겠어. 아무 것도 모르고 끼게 된 거지."

그러나 겸손이었다. 스님은 분명히 독립투사였다. 독립모임에서 자금책을 맡았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던 관계로 비교적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고 나이도 어려서 아버지의 후원으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스님은 "일본 사람들 횡포가 말도 못했지. 순사들이 우리한테 장총을 겨누더니 그냥 막

독립운동서 자금책 맡다 투옥
한 살 위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 만세" 외치던 일 '생생'
출가 후 투사들 극락왕생 발원

쏴버리는 거야. 애 어른 할 것 없이 죄다 쏴 죽였어. 사람 목숨이 파리만도 못했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은 다행히 일본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외모가 닮은 독립군 첩자로 오인한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체포 과정에서 총탄에 정강이를 맞았고 투옥된 뒤에도 장기간 고문을 받아 온 몸이 만신창이라 할 정도로 허약해졌다.

스무 살 무렵인 1920년대 중반 석방된 스님은 귀국해 금강산 수미암에서 병치료를 하던 중 불가에 귀의했다. 은사는 당시 금강산 지역에서 높은 수행력으로 이름을 날리던 웅필 스님이었다.

이후 8. 15 해방을 맞아 남하했고, 청주지역에서 둥지를 틀다가 천진암 영통사에 자리를 잡았다. 영통사를 창건하고 한때 신도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 포교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지만 주변 이교도 단체의 음해와 방해로 6년 전 이곳 양평 용수사로 옮겨왔다.

스님은 104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3.1 운동 당시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유관순 언니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만세삼창을 하는데 가슴 쪽 천에는 '내나라를 빨리 내놔라' 라고 씌어 있었어. 그것을 본 일본 순사들이 '저 여자가 주동자다' 그러면서 잡아갔지…."

"죽어가거나 옥살이 하면서 나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 꾀부린 사람만 살아남았지. 그 때 독립 운동했던 투사들은 다들 힘들게 살다가 갔어. 나도 그 분들 사진을 볼 때면 살아있다는 것이 죄스러워. 우리 국민들도 이제부터라도 생각들을 고쳐야 해. 세상이 잘못 됐다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면 어떡해. 좋은 세상이 오도록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지. 안그래 기자양반?" 스님의 또렷한 음성에는 분명 아직도 과거에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힘찬 기백이 서려 있었다. 스님은 광복절이 다가오자 얼마전에도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분들만 생각하면 정말 밥도 안넘어가.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출가 후 매일 부처님께 빌었지. 그분들 극락세계에서 편안히 쉬게 해달라고 말이야."

양평/글 · 사진=김주일 기자

동국대 '가짜학위' 신정아 파면

"학교 이미지 실추"로 징계



동국대가 8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박사 학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교수(사진)를 파면 조치했다.

동국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신씨는 불참했다.

징계위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케 했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피랍 사태 평화적 해결 힘써달라"

조계종, 한국 미국 아프간 정부에 요청

조계종이 아프간 피랍 사태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프간,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8월 2일 대변인 기획실장 승원 스님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리 종단은 무고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좀 더 지혜롭게 탈레반과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아프간과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 해결의 원만한 해결과 인류 평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태허 스님 유적지서 불자들 합장

운암기념사업회,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가 '제2회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을 8월 7일 떠났다.

탐방단 70여명은 중국에 도착한 첫 날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상하이를 찾아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의거지 홍구공원(현 노신공원), 송경련능원 등을 살폈다.

셋째날 둘러본 무한에는 운암 선생(태허 스님)의 유적이 남아있다.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거점 지역이다. 김원봉, 유자명과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단체에서는 '조선민족전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고, 운암 선생은 편집을 맡았다. 무한 운암 선생 유적지 앞에서 불자들을 주축으로 운암 선생이 아닌 태허 스님을 기리기 위해 합장하고 태허 스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사진)

중국/=김강진 객원기자

<차주상보>



영통사만 다녀와야 성지순례?

천태종,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발언에 반박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영통사만 다녀오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성지순례와 개성 관광은 별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천태종이 반박했다.

윤만준 사장은 8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죽교, 고려박물관 등 유적지 관광과 같은 관광 성격이 아닌 영통사만 다녀오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의 성지순례는 개성관광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태종은 "재벌이 성지순례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경협사업인 개성관광의 차이를 모르고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틀이 될 역사적인 사업을 이익만 생각해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태종은 불자들의 성지순례의 방문횟수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에 반발, 주 3회 각 500명씩의 성지순례 인원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홍탁화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봉사·장학사업으로 활동 확대"

출범 35년·800회 법회 여는 부산불교거사림회

법회 800회, 부산 불국토의 기둥이 되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는 부산불교거사림회의 저력은 35년간 이어온 법문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1972년 7월 31일 부산 영도 도서관에서 들려온 금강경 독송 소리는 현재까지 이어져 감로수를 갈구하며 찾아다니는 재가자들과 법문의 현장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불교거사림회는 35년 전 고승 효봉 스님이 인정한 백봉 김기추 거사(1908~1985)의 '금강경 독송회' 강연과 불교신문(당시 대한불교) 부산 지사장 고(故)양흥모씨가 주도한 가운데 부산 남성 불자 20여명으로 시작됐다.

"불교세가 강한 부산에는 보살불교만 있는가. 수행과 덕을 쌓는 거사불교를 활성화시키면 부산불교는 더욱 번창하리라"는 원을 품고 출범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 문현동 호명사와 소림사 등에서 자체 법회를 봉행하다 대중법회로 거듭났다.



2002년 6월 11일 법회를 마친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원들이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상임지도 법사인 종범 스님과 기념촬영했다. 부산불교거사림회는 8월 14일 부산 초량동 소림사에서 800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경봉 스님을 시작으로 석암, 향곡, 고암, 청하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졌고 이기영 박사, 홍정식 교수, 김지견 박사 등 불교학자들의 깊고 수준 높은 강연도 법석을 채웠다. 1972년 창립법회 후 부산불교거사림회 법회에서 법문한 법사는 스님 125명과 재가자 23명 등 총 148명에 이른다.

현재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부산 초량동 소림사 큰 법당에서 중앙승가대 총장인 종범 스님과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인 지안 스님을 상임지도 법사로 모시고 매월 둘째 화요일에 <금강경> <육조단경> <화엄경> <유마경>을 강설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제방의 큰 스님을 초청 오후 7시에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매년 두 차례씩 사찰을 순례하며 야외법회를 개최한다.

현재 14·1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배호암 회장은 "사찰 문턱을 넘는데 다소 소극적이던 남성들을 하나 둘 법당으로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불자로서의 역할과 신행이 고루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늘의 거사림법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산실이 되고 있다"며 현재 거사림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의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삶 속 실천의 단계로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한 배 회장은 "앞으로 법회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회장은 "정법구현, 생활불교, 대중포교에 앞장서고자 노력하는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051)442-1280

하성미 기자

"문화재 거래 신뢰성 제고"

문화재청,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문화재 매매업의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8월 2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와 공동으로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제정 선포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도난·도굴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며, 바람직한 유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 매매업 윤리강령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에는 △문화재를 원형보존하여 거래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거래하지 않으며 △문화재의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며 △문화재를 허위 평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윤리강령 제정으로 문화재의 유통 문화가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국민들이 문화재 매매 시장을 신뢰하고 문화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01개 시·군·구에 921개 문화재 매매업체가 활동 중이다. 여수령 기자

사찰 매화나무 '천연기념물' 된다

백양사 고불매 등 4건 지정 예고

단아한 꽃과 깊은 향기로 사찰에 기품을 더해온 매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古佛梅)와 구례 화엄사의 매화(梅花), 순천 선암사의 무우전매(無憂殿梅) 등 4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호남5매(湖南五梅) 중 하나로 꼽히는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古佛梅)는 수령 350년 정도로 높이는 5.3m, 줄기 둘레는 1.47m이다. 담홍색 꽃을 피운다. 구례 화엄사의 매화(梅花)는 수령 450년 정도로 추정되며 나무높이는 7.8m, 줄기 둘레는 1.51m에 이른다. 화엄사 길상암 앞 경사지에서 자라고 있다. 순천 선암사의 무우전매(無憂殿梅)는 수령 600년 정도로, 선암사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에 심은 20여 그루의 고목 매실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수형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 대각국사가 중창한 선암사의 상량문에 의하면 와룡송(臥龍松)과 함께 심어졌다. 이 밖에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됐다.

이들 매화나무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학자와 일반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여수령 기자

쌍계사 벚꽃길 대원사 진입로 '아름다운 길' 선정

하동 쌍계사 벚꽃길과 보성 대원사 진입로 등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은 건설교통부가 해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하동 쌍계사 벚꽃길이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벚꽃과 단풍으로 뒤덮인 백양사 진입도로' '대원사 진입로 왕벚나무 터널' '내소사 전나무 숲과 오색단풍 나무 어우러진 길-내소사 진입로' '푸르른 속으로 가는 길-송광사 진입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보성 대원사의 진입로는 길이 5.5km로, 길 양 옆으로 20년생 왕벚나무가 심겨져 있어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보성군과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대원사 진입로에 대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대성사 '선남선녀 인연맺기' 행사

충북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을 맞아 8월 19일 '선남선녀 인연맺기'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에는 그간 대성사를 통해 인연을 맺은 48쌍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참석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선남선녀 인연맺기'에 참가하는 미혼남녀들은 레크리에이션과 게임 등을 통해 짝을 찾고, 사찰 주변 장용산을 등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부처님 인연법과 만남'을 주제로 한 박영학 前 옥천교육장의 강의도 마련된다. 여수령 기자

화홍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수원시 북수동 화홍어린이도서관(관장 혜정)은 여름방학을 맞아 글쓰기, 페이스페인팅 배우기 등 다양한 특강을 마련한다.

도서관이용자(초등학교 1~6학년)를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14일 글쓰기, 종이공작 핸드폰줄 만들기 △15일 풍선아트,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16일 글쓰기(1~3학년), 페이스페인팅 배우기 △17일 글쓰기(4~6학년), 메이킹북 만들기 △18일 글쓰기(1~3학년), 동양부채 만들기 △19일 외국인과 함께하는 생활영어 등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월정사, 목사님들과 족구 대회

신부님들과 족구로 친선을 도모했던 평창 월정사 스님들이 이번에는 목사님들과 한판 족구 시합을 벌였다.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4~5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둔치 체육공원 내 특설코트에서 '제3회 오대산 월정사 주지배 강원도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월정사는 지난해까지 지역 신부님들과 친선경기를 벌였으나 올해는 제천 지역에 거주하는 목사님들과 자웅을 겨뤘다. 남동우 기자

JTS, 북한동포 긴급구호 캠페인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기구인 JTS(Join Together Society) 국제구호단체(이사장 법륜, 이하 JTS)는 8월 7일 해운대 하버타운 앞에서 '생명 가진 자들에게 평화와 생명을'을 주제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캠페인에 참가한 정토회 JTS 회원 30여명은 북한의 기아 실정을 알리고 옥수수 1천 톤을 모아 함경북도 지방에 기증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모금 운동은 백중회향일인 8월 27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展 박수근 미공개 작품 첫 선

가난한 사람들의 어진 마음을 담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작 '줄넘기 하는 아이들'이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최초로 공개된다.

작품 '줄넘기 하는 아이들'은 가로 30㎝, 세로 40㎝로 여러 명의 아이가 줄넘기하는 모습이 거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50년대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박수근 화백은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월저 김진조 선생의 기증 회화전을 마련해 도상봉의 '추경', 오지호의 '도원', 천경자의 '타지마할'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료 2000원. (055)382-1001

하성미 기자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한마음'

부산종교인평화회의, 7대종교 대표자 모여 조기석방 촉구 기도회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구하소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각)는 8월 7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7대종교 대표인들이 모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조기 석방 촉구 기도회'를 열고 한국인 인질 21명을 억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비난하고 세계 평화와 피랍인들의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정각 스님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에 억류되어 공포와 죽음의 긴장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랍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바라만 볼 수가 없어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 성직자들과 신도 대표들이 모여 기도하게 되었다"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정각 스님은 이어 "탈레반 세력에 무참히 살해된 2명 희생자의 명복과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필요한 바를 얻고자 하는 탈레반의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8월 7일 기도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의 조기 석방을 기원했다.

기도회에서 정각 스님, 자인 스님 그리고 정영문 목사, 박용조 신부, 송윤복 부산시유도회 부회장님, 박호권 천도교 교구장, 박차귀 천도교 선도사, 최신길 원불교 교무는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간의 믿음을 존중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피랍인들이 무사히 석방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금강총림

전국 대덕스님 초청 (소년소녀가장돕기) 불국정토 건설을 위한 대법회

종교지도자가 바로 서야, 사회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다.
혼탁한 사회를 바르게 인도 할 올바른 종교지도자 육성이 현시대적 간절한 요청임을 정봉 큰스님께서 지적하시고 종교, 종단, 종파를 초월해 시대적 요청에 맞는 총림불사를 서원하시어 금강총림이 그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총림의 3대 원력을 세워 이 시대 종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를 근본으로 하여 불국토 건설에 풀 뿌리가 될 수 있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의식을 장엄하게 형상화 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불교의 위상과 불퇴전의 보리심을 고취시키고 불국토 건설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의 불자들을 모두 금강총림으로 모셔 큰스님의 살아있는 참 가르침을 듣고, 장엄한 불교의식의 참모습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불자들에게 대대적인 대법회를 통하여 거룩하고 웅장한 불멸(不滅)의 향연(饗宴)을 보여줘 불퇴전의 보리심을 고취시켜 불국토 건설의 장을 열어 금강총림을 알리고, 불자들의 근기를 키우며 금강총림 불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대법회에 무루 참석하시어 불국토 건설에 동참하시기를 서원하옵니다.

• 총괄본부장 : 도 봉
• 사업추진위원 : 조 암 정 암 도 석 이 화 성 원 벽 봉 광 덕 덕 영 이경희 노철래 김삼열 금화행



금강총림 금강사 터의 유래

신라 시대 이차돈 성자께서 수행하시고, 당시 금강사라는 사찰이 있다가 고려 초에 소실 된 사고(寺古)터로써 도선비기와 정감록에 이르기를 "한반도 10승지 중 제일승지는 소백산 금계촌 진골이며,신천(新千) 7년 정진인(正眞人) 이 나타나 800년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예언되었다. 진골이란 진령골을 말하며,신천(新千) 이란 새로운 천년 즉 2,000년을 뜻하며, 정진인 에 "정(正)"이란 바를 정 을 뜻하며, "진(眞)"이란 참 진,"인(人)"이란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이 참되고 바르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 즉 "정법"을 뜻하는 것이다.

정봉 석혜원 큰스님의 발자취

큰스님께서는 1974년 경봉 큰스님을 은사로 극락암에서 득도하시고 1977년 월공 대조사 스님을 은사로 법계 수지.

25년간 토굴수행을 하시고 1998년 태백산에서 단식 60일 정진 후 총림불사 삼대 원력을 서원 하시고 인고의 세월 10년에 이르러 현 대한불교 금강총림 천년법계 화엄도량 대작불사에 완전한 초석을 이루셨다.

〈큰스님 삼행심〉
- 절대적으로 믿으라 - 내자를 꺾어라 - 빈 마음으로 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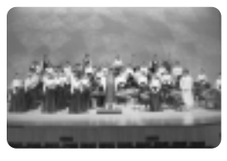
1. 일 시 : 2007년 9월 1일 (음력 7월 20일) 오후 1시 ~ 4시
2. 장 소 : 대한불교 금강총림 총본산 소백산 금강사
3. 식전행사 : 세계 최고의 진악국악관현악단이 펼치는 창작 불교음악 시연
4. 본 행 사 : 불국토의 메아리 -
사회 이현아 [불교TV아나운서]
어리석은 일체의 중생을 일깨우고자 부처님 참 진리를 소리로 형상화 시킨 불교의식을 재현하는 장.
법고 | 종성 | 범패 | 의식염불



불국토의 향연 -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고뇌와 번뇌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장.
승무 | 바라춤 | 불무도



불국토의 향기 -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장.
찬불가 | 기도 및 축원염불



5. 문 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711번지 금강사
전화 054)638-6546,7 / FAX 054)638-6545
http://cafe.daum.net/sobacksan
6. 버스승차 : 세종문화회관,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앞 (2007년 9월 1일 오전9시 출발)
※기타지역은 금강사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차를 보내드립니다.

상가·절 상생의 길 찾아야


유선여관.


구림리 상가.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4 두륜산 대흥사

비가 내려서인지 나다니는 사람들이 드물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상가들을 둘러보는데, 사람들 표정이 하늘의 먹구름을 닮았다. 궂은 날씨 속의 궂은 얼굴들. 말을 걸어도 별 대꾸를 하지 않는다. 늦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는데, 맛이 없다. 왜 이렇게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 보이냐고 물었더니,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상가 주인이 마지못해 대답을 한다.

"유선여관 등은 절집이여. 다 내려 보냄서, 거그서 독점을 항께 뭐락 안 하꺼시여. 차는 걸로 막 올라가분디 뭔 장사가 돼."

개인 상가들은 아래쪽으로 이전하게 하고, 절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상가를 그대로 두었다는 말이다. 구름이 잔뜩 낀 구림리를 뒤로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다.

대흥사 오르는 길의 숲은 오래된 고요가 숨어 있다. 고요를 지나는 물소리는 고요하지 않지만, 그 맑음이 고요를 더 깊게 한다. 비가 내려도 날은 덥다. 그나마 숲 깊은 곳이라 푸른 물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바람이 분다. 이 숲길에서는 빗방울도 초록이다.

한참 가서야 몇 개의 가게가 나오고, 유서 깊은 유선여관이 나온다. 새로 개보수를 하였다는 유선여관은 예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대흥사는 일주문이 둘이다. 먼저 보이는 것은 두륜산 대둔사라는 현판이 붙은 일주문이고, 한참 지나 두륜산 대흥사라 씌어진 일주문이 나온다. 나말 여초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흥사는 오래 전엔 '한듬절'이라 불렸다. 두륜산의 본래 이름이 '한듬'이었기 때문인데, 이후 한자의 영향을 받아 대듬절이 되었다가, 대둔사, 대흥사로 바뀌었다. 대흥사는 1993년 대둔사라는 옛 이름으로 고쳤다가 다시 대흥사로 바꾸었다. 일주문이 둘인 것과 이름이 바뀐 것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대흥사에는 사천왕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대둔산 봉우리들이 사천왕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10여 년 전에 올 때만 하여도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왠지 휑한 느낌이 든다. 절 앞쪽을 새로 다진 터가 아직 익지 않는 탓이리라.

문턱 있는 문을 지나야 나오는 천불전은 여전하다. 천불을 뵙고 저마다 모습이 다른 그 많은 부처님을 뵙고, 두 손을 모은 후 '불거(不居)'와 '공덕(功德)'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이내 걸음을 옮겨 대웅전으로 향한다. 대흥사 대웅전의 현판은 원교 이광사의 글씨다. 그런데 이 현판은 추사 김정희가 유배 갈 때 떼어내고 9년 뒤 다시 돌아올 때 붙였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대웅전 바로 옆 건물인 '무량수각(無量壽閣)'의 현판이 추사가 원교의 글씨 대신 걸었다는 글씨다.

유선여관 등이 상권 독점해 아래쪽 개인 상가들 원성 대단 주지 직인으로 마을 차량 구분

오래도록 완숙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절을 나온다. 유선여관을 지나 마을로 향한다. 상가 뒤편 길로 들어가자 예전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다. 마을에는 나다니는 사람이 없다. 집집마다 차가 세워져 있는데, 차 앞 유리마다 대흥사 주지의 직인이 찍힌 종이가 붙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차임을 구분하기 위해 그러했을 것이다.

"옛날에 마전밭, 참밭 그랬어. 스님가족들 산다해서 동구라고도 하고, 장춘이라고 단 것은 얼마 안 됐어. 한 3년 됐어."

사람 하나 보이지 않더니, 한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밖을 보고 있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마을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 정경업(83 · 장춘리) 할머니다.

"우리집 어른이 고시님이라고 열두 살에 와갖고 여든 둘에 돌아가셨당께."

할머니의 얼굴엔 고요함과 따스함이 함께 담겨 있다. 뜰에는 보기 드문 풀과 나무가 많다.

"큰 법당에 불나부러서 새로 집 짓니라고 여그다 막을 쳤다고. 그래 그것이 이 집터여. 여그가 막터여. 일꾼들 막 터. 대웅전 지슬 때."

집터에 얽힌 내력까지 나온다.

"여그서 삼스롱 다른 절로 다님서 탱화 기리는 양반이라 나라 돈 묵고 살었제."

그제야 나는 대흥사 오르는 길가에 서 있던 조그마한 안내판을 떠올렸다. 탱화장 고재석 화승(전남도 무형문화재 31호). 낭월(浪月) 선사가 바로 할머니의 바깥어른이었던 것이다. 열두 살(1936년)에 출가하여 대흥사에서 사미승으로 있었던 낭월 스님은 대흥사 불사를 하러온 탱화장 김일엽(중요무형문화재 45호)의 눈에 띄어 금어(金魚)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짱짱한 정신의 소유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징하게 자상하다가 가셔분께 아쉬운 사람이 많하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생전 병원 한 번 안 다니고, 아픈 디도 없이 가셨어."

제자들에게 혹독하기로 소문이 났던 낭월 스님. 그는 4천장의 초본을 세필로 그린 사람에게만 채색을 가르쳤다한다. 그래서 그의 제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수가 적다. 그중 그의 셋째 아들 고성주(50 · 고교 미술교사)씨가 스님의 뒤를 이어 금어의 길을 가고 있다.

"시님이 나 살려놓고 가셨제."

할머니는 낭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저녁에 내려왔더니, 스님이 다짜고짜로 '낼 아침 일찌거니 병원에 가게' 그랬다는 것이다. 아픈 곳도 없는데, 병원에 가라는 스님 말을 듣고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 길로 마중 나온 자식들과 신경외과에 갔는데,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집에 오자 이번에는 스님이 앓아누웠다.

"내가 온께, 멋있다 그라드라고. 근디 그라고 나흘 아퍼서 광주 병원에 갔는디, 석 달 동안 말 한나 안 하고 가셨어. 딱 병원에 가심서부터는 전화도 끊어져불고 사람도 끊어져 부러야.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안 끊어졌는디, 당신이 돌아가실라고 그라고 인연을 끊어부렀구나 싶드랑께."

스님들의 속가가 이 집 말고는 없었느냐고 묻자, 몇 집을 들먹인다.

"이상 댓집 살었어. 길용이라고 그 시님 한 (입적하신 지) 7~8년 됐어. 박주지라고 있었는디, 대흥사 주지 노릇 많이 했어. 마누라는 서울서 왔는디, 선생질 하고, 그 낭반 가신 지도 한 7~8년 됐어."

마을을 빠져 나오는데,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상가의 셔터가 내려지고 있다. 가게 보는 이가 주인이 아닌 절의 직원인 탓이다. 다시 아래 상가



대웅보전 현판 (원교 이광사 글씨).



무량수각 현판(추사 김정희 글씨).


일주문.

일지암 여연 스님



건강이니 웰빙이니 하여 차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녹차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다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여 서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차를 마시며 무언가를 깨쳤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이런 와중에 여연(如然) 스님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차>라는 책은 어설픈 다인(茶人)에게 퍼뜩 정신 들게 하는 죽비 소리다.

여연(如然) 스님(사진)을 만나기로 한 날. 여연(如然), '자연과 같다'는 말을 오래 생각했다. 약속된 시간에 일지암에 도착 했는데, 주인이 없었다.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구름이 갖가지 형상으로 변했다가 부수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일지암은 우리 차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하지만 문헌에 기록만 남아있을 뿐 암자의 위치조차 묘

문헌 속 일지암 터 찾아 복원 초의 선사 차맥(茶脈) 이어

연하였던 것을 1970년대에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터를 찾고 복원하였다. 그때의 차인 중 한 사람이 여연 스님이다.

차의 종류로는 흑차, 백차, 홍차, 황차, 청차 등이 있는데, 크게는 발효 여부에 따라 나뉜다.

"이파리가 귀해서 하루 종일 따도 반통도 안 나오지. 그래서 이파리 키워서 만든 게 떡차. 구멍 뚫린 것과 아닌 게 달라. 젓갈 담을 때 소금 양에 따라 차이 있듯이, 구멍 뚫으면 발효가 잘 되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거침이 없다. 봉, 용 모양의 음각 양각에 생금을 넣어 먹었다는 북원차 이야기, 명나라 때 백성의 피해 심하므로 단차 금지 칙령을 내렸다는 이야기. 차에 대한 그의 박식함도 놀랍지만,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는 쉽게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다.

지금은 차에 있어서 1인자로 불리곤 하는 스님이지만, 스님이 차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독특하다. 1971년 해인사로 출가하였던 스님이 공부하기 위해 남해 용문사에 머물 때였다.

"원주스님이 아픈 거여. 근데 약국 갈려면 몇 십리는 걸어가야 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캐비닛 속에 있는 것을 보살이 꺼내 놓드라고. 스님들이 감기 걸릴 때 이 풀을 달여 먹드라면서. 그래 그것 반통 정도를 약탕기에 넣고 고왔다니까. 반잔쯤 될 때까지. 그렇게 약을 고와 원주스님 드렸더니, 다 마시고 나서, 무슨 약인데, 소태보다 쓰냐고 그래. 그래서 캐비닛 속에 있던 그 풀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별안간 호통을 치더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차인데, 큰스님 드리려고 깊숙이 숨겨놓은 것인데, 그러면서."

온갖 차를 대접 받는 동안, 산중 암자의 시간은 구름 흐르듯 흘렀다. 스님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어다 보았다. 뒷모습을 가만 보고 있자니, 스님이 그대로 자연 속에 우려지고 있는 것 같았다. 여연(如然)이었다.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옥돌침대
흙 침 대
인기 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거북이표 흙침대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일주문



정조대왕 207주기 제향식 봉행

화성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8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대왕 승하를 기리는 '정조대왕 제207주기 제향식'을 봉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천도재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8월 15일 은해사 거북바위 앞 야외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초청, 희생자 천도재와 쌍거북바위 진혼제를 봉행한다.



천태차문화 수련법회 봉행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장 춘광 스님은 8월 4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차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수련법회를 봉행했다.



신용철 박사 초청 특강 마련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8월 26일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용철 박사를 초청, '탱화로 보는 불교우주관'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051)508-0345



포교현장 사진 공모전 개최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8재계 수계실천법회 기간을 맞아 8월 15일까지 포교활동현장과 관련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02)927-0588



안동 서암당 중건식 봉행

재단법인 서암문화장학회 손현수 이사장은 8월 15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 서암당에서 지난해 화재로 소실된 서암당 중건식을 봉행한다.(02)2233-4331

일연문학상에 장옥관 교수 학술상은 채상식 교수 선정



제3회 일연문학상에 시인 장옥관(계명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사진 왼쪽)씨가, 제2회 일연학술상에 채상식 교수(부산대 사학과 · 사진 오른쪽)가 각각 선정됐다.

장 시인은 시집 <달과 뱀과 짧은 이야기>를 통해 불교적 세계를 기저로 한 활달한 상상력으로 환상과 현실의 상응과 융합을 이뤄냈으며, 채 교수는 20여 년에 걸친 탁본 수집 노력으로 일연 비(碑) 복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연문학상과 학술상은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은해사와 인각사, 군위군 등이 공동주최하는 삼국유사 문화제에 맞춰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각각 1천만원이고, 시상식은 8월 20일 군위 인각사에서 열린다.

名士의 여름나기 — <3>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



"음악의 바다에서 책 읽고, 별 보고…"

세상을 달구던 태양이 설핏 기우는 오후 4시. 우리나라 현대천문학의 개척자인 이시우 박사(70)의 아파트는 바다가 된다. 푸른 물결 대신 교향곡의 선율이 파도치는 바다. 고운 모래 대신 장중한 오케스트라의 호흡이 펼쳐지는 클래식의 바다다.

"매일 두어 시간 음악을 듣는 것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즐거움이죠."

어디 여름뿐이겠는가? 이 박사의 음악실은 가을이면 끝없이 낙엽 흩어지는 정갈한 공원의 산책로가 되고, 겨울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산골마을이 된다. 봄이면 아지랑이처럼 하염없이 피어오르는 감미로운 음악의 향연장이 된다.

음악을 듣는 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음악의 바다에 빠지면 더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온 몸에 넘쳐난다. 마음을 닦는 일은 몸을 새롭게 하는 일인 것이다. 이 박사가 음향기기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것도 귀만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닦아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거실과 방의 벽면에 서 있는 어른 키만 한 장에는 CD가 가득하다. 음반 매장에 나가 새로운 음반을 고르는 재미도 이 박사가 여름을 이기는 비결중 하나다.

"대부분의 여름이 그랬지만 올 여름에도 책 읽고 글 쓰고 음악 들으며 지냅니다. 정년퇴직 하고나서 시간이 많은데 막상 살아보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늘 바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이 박사가 탈고해 출판사로 넘긴 책의 제목은 <별처럼 사는 법>이다. 천문학자에게 별은 화두이기도 하고 삶의 지침이기도 하다.

"요즘 사람들은 별을 너무 안 봐요.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별을 자주 보는 사람이 잘 사는 길도 알게 됩니다. 더운 여름 밤,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시리지요. 별은 살아 있고 한없이 가르침을 주거든요. 별은 욕심이 없어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도 없어요. 항상 안정되게 존재하고 최소의 에너지로 낮게 존재하니 항상 정(定)에 머무는 것이죠. 또 별은 외부 작용에 대해 최소의 에너지로 대응하는데 이것은 혜(慧)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존재 원리를 지키는 것은 계(戒)를 지키는 존재란 의미고요. 다시 말하면 별은 삼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존재하고 이를 우리는 '최소작용의 원리'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요하게 이어진다면 불끈불끈 솟구치는 화를 다스릴 수 있고 탐욕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과 부정을 동시에 지닌다. 이른바 '이중적 동거성'을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연기관계를 떠나 존재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이시우 박사는 "별은 스스로 계정혜를 지키기 때문에 이중적 동거성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도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개성을 집단에 녹여 들이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는다면 별처럼 안정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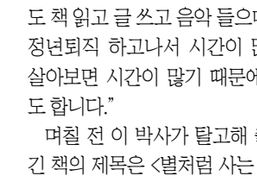
이 박사가 "별을 자주보라"고 권하는 것은 별을 자주 보는 사람은 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들끓는 욕망과 사상(四相)을 잠재우고 완전한 '이완상태'에 젖어들어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며 살아가는 자유인의 길을 별이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아담한 음악실에 앉아 클래식의 볼륨을 높이고 온 몸을 선율에 맡기는 이시우 박사의 모습, 별 하나가 방안을 밝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임연태 기자

이미령·이종만씨 16회 행원문화상 수상

제16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역경분야 · 사진 왼쪽)과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실장(예술분야 · 사진 오른쪽)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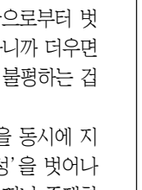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심사평을 통해 "이미령 위원은 팔만대장경 번역 등 활발한 불전번역과 저술활동을 통해 불교학 발전과 정립에 힘써 온 공로가 인정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만씨는 교계유일의 찬불가 보급단체인 '좋은벗 풍경소리' 기획실장으로 찬불동요집을 13여년동안 발간하는 등 새싹불자 포교에 묵묵히 매진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선정 됐다"고 덧붙였다.

역경상을 수상한 이미령씨는 불서읽기모임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을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경전 강의와 불서 번역 및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대당서역기><본생경><밀린다왕문경> 등이 있으며, 최근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를 펴낸바 있다.

예술상을 수상한 이종만 씨는 23집에 달하는 찬불동요음반을 발매했으며, 지난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서 '붓다콘서트'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문화일보 홀에서 단독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시상식은 9월 14일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강당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사감원장에 효운 정사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감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월 27일 진각종 종의회에서 임기 4년의 제 33대 사감원장으로 선출된 효운(대구 보원심인당 주교 · 사진) 정사는 이같이 당선소감을 밝혔다. 진각종 종의회는 제352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재적의원 37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18표를 얻은 효운 정사를 사감원장으로 선출했다.

효운 정사는 1984년 능인심인당 교화를 시작으로 제9~12대 종의회 의원 ·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현재 심인중 · 고등학교 정교실장, 회당학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장수 죽림정사 제2대 주지 진산식 봉행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장수 죽림정사 제2대 주지 법륜 스님(정토회 이사장) 진산식이 8월 1일 조계종 원로의원인 불심 도문 스님을 비롯한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륜 스님은 취임사에서 "용성진종(白龍城) 조사님의 사상을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산불교大 2007학년도 입학식 개최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8월 4일 동산불교회관에서 200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100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해 2년간 불교역사와 교리, 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입학식에 이어 박종 교수(동국대)의 법화사상 강의가 마련됐다. 무진장 스님은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해 열심히 포교하는 역군이 되라"고 당부했다.

진각종 청년회 '과제와 비전' 워크숍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신정호)는 7월 28 · 29일 양일간 경주 일대와 위덕대학교에서 '진청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2007 진각청년대회(En-visioning 워크숍)'를 개최했다. 서울, 대전, 대구, 포항, 부산 청년회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청년대회는 세미나와 포항교구청장 무외 정사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비로자나청소년協 고구려 · 백두산 탐방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회성)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 '위풍당당 VIYA 청소년'을 주제로 중국 단동, 이도백하, 통화, 집안일대에서 고구려 · 백두산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탐방에는 전국 지부, 지회 청소년 및 진각종 각 심인당 학생회 회원 50여 명이 참가했다.

2007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9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대지도론	김형준 교수
		입보리행론	양승규 교수
근본불교학과 (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4)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시간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8월 1일 ~ 9월 4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9월 3일(월), 9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9월 6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 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8월 1일 ~ 9월 6일 입학금 250,000원

전형방법	강의개강일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9월 4일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 법사과정) : 9월 4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4일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미술학과) : 9월 4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6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4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7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심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범 패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실 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9월8일 토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9월 8일(토) 오후4시30분(정규반)
7일(금) 오후 3시 (범패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마음 알아차리면 몸도 고쳐요”

[명상치료 권위자 **장현갑** 교수]



우리나라 심신(心身) 의학의 선구자인 장현갑 교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존재 자체로서 행복해지는 해탈의 순간"을 꿈꾼다. 8월 말 정년퇴임을 앞둔 장 교수는 평생에 걸쳐 모은 책들을 후학들에 물려줄 예정이다.(사진 위) 앞으로 명상치료를 책임질 전문가들을 지도하는 장현갑 교수.(사진 아래).



10년간 불교 수행법과 명상치료 연구에 ‘미친듯이’ 매달려
개발 프로그램으로 국제인명센터 헌정 등 최고 자리 올라
마음챙김은 복잡한 이론과 실기 아닌 실천에 있음을 강조

현대인의 삶은 고(苦)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쟁, 빠듯한 가정살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고통’이다. 이 모든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오늘날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70~80%가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병들었고, 그 마음의 고통이 몸의 고통으로 번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만병의 근원이자 행복의 지름길이기도 한 이 ‘마음’을 어찌해야할까?

우리나라 심신(心身)의학의 선구자인 장현갑 교수(65 · 영남대 심리학과)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반복적인 명상을 통해 단련하면, 마치 몸의 근력이 늘듯 마음의 집중력이 증가하고 비로소 ‘무상(無常)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자리로 돌아간 그곳에서 고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장 교수는 말한다.

명상을 심리치료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불교계 내외에서 명상의 치유효과에 주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관련 학회들도 속속 창립되고 있다. 장 교수는 이러한 ‘명상치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면에 있는 자연적인 치유의 힘을 불러내 잘못된 행동과 관념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그 역시 처음에는 ‘마음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실험실에서 먹고 자며 뇌 구조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뇌의 기억구조’를 밝혀냈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극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당시 장 교수는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의 <이완반응> 카밧진 교수의 <명상과 자기치유> 등의 책을 읽으며 ‘마음치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마음수련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하던 그에게 때마침 기회가 주어졌다. 영남대학교가 심리학과를 신설하고 그에게 교수직을 제의한 것이다. 영남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국선도와 태극권 등을 수련하며 ‘마음과 몸’의 관계에 천착하기 시작했다. 벤슨 교수의 이완반응과 카밧진의 마음챙김명상을 심리치료에 응용한 프로그램을 연구했고, 여기에 불교의 마음공부를 접목한 명상치료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명상치료 연구의 초석을 쌓아가던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친 것은 1997년. 안식년을 맞아 명상수행과 심신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1년간 미국 애리조나대학으로 떠났던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는다. 그 자신도 6개월간 병상 신세를 졌다.

“‘고통’이야말로 참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서졌던 두 다리로 휠체어만 탈 수 있어도 좋겠다고, 그 다음엔 목발 짚고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또 다음엔 두 발로 걸을 수만 있기를 바랐고 1년만에 모든 것이 이뤄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긍정의 힘,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을 찾아낸 것이지요.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후에야 얻어지는 삶의 도약 말입니다.”

건강을 되찾고 복직한 장 교수는 지난 10년간 불교 수행법과 명상치료 연구에 ‘미친듯이’ 매달렸다. 1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했고,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이완 프로그램(MBSR, Mindfullness-Based Stress Reduction)’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기도 했다. 2005년에는 가톨릭 의대에서 국내 최초로 통합의학교실을 개설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장 교수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다. 2001년부터 7년 연속 세계인명사전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고,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100대 교육자’에 선정되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8월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장 교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그간의 대학 강의에서 벗어나 좀 더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와 서울여대, 조선대, 가톨릭의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대구 시내에 ‘마인드플러스 스트레스 대처연구소’를 마련해 환자들을 직접 만나며 명상치유를 전파하고 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언어유희나 신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8주간의 과정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비법’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일 뿐이지요.”

‘마음챙김’이나 ‘명상치료’는 복잡한 이론과 실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는 장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전개되는 모든 것을 몸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말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다.

“제 목표는 존재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 또렷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존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의미의 해탈이고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장현갑 교수는**

1942년 출생. 서울대 심리학과와 동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의대 및 가톨릭 의대 뇌과학 연구 외래교수, 뉴욕주립 발달장애연구소 객원연구원, 애리조나대 건강심리학 객원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79년부터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60년대 생리심리학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80년대 명상과 의학의 접목을 시도한 ‘통합의학’ 연구에 주력했다. 세계인명사전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 지난 5월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의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영구 헌정됐다. 펴낸 책으로는 <몸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삶의 질을 높이는 이완명상법> <마음챙김> 등이 있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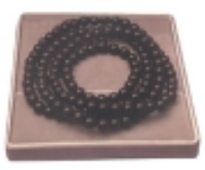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1SET (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2> 부처나 조사도 원수처럼 보라

선가에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고 하였으니 나무로 만든 부처를 불살라 땔감으로 쓰고 아기 석가모니를 때려잡아 개밥으로 던져 주겠다고 한 선사가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이 뜻은 부처나 조사에 대한 집착도 떨치라는 말이다. 공부가 무르익어 부처나 조사의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그 경계에조차 '나'와 '부처'라는 미세한 탐욕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계마저 없어져야 참 부처요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선가귀감> 80장에서 말한다.

大丈夫 見佛見祖如冤家 若着佛求 被佛縛 若着祖求 被祖縛 有求皆苦 不如無事.

대장부라면 부처나 조사를 원수처럼 보아야 한다. 부처의 경계에 집착하여 구하는 것이 있으면 부처의 경계에 얽매이는 것이요 조사의 경계에 집착하여 구하는 것이 있으면 조사의 경계에 얽매이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모두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느니만 못하다.

<임제록>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여라"고 한다. 이상향을 추구하는 대상으로서 '부처나 조사라는 경계'까지도 얽매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근기야말로 참된 부처요 바른 안목이 열린 대장부이다. '눈 푸른 납자'는 어떤 인연을 따르더라도 그 속에서 무심하게 모든 일을 성취해 내는 아름다운 성자의 삶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佛祖如冤者 結上無風起浪也 有求皆苦者 結上當體便是也 不如無事者 結上動念卽乖也. 到此 坐斷天下人舌頭 生死迅輪 庶幾停息也. 扶危定亂 如丹霞燒木佛 雲門噙狗子 老母不見佛 皆是摧邪顯正底手段 然畢竟如何.

'부처나 조사도 원수처럼 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처와 조사들이 이 세상에 나오는 일도 깨달음의 근본자리에서 보면 바람 없는 큰 바다에 쓸데없이 거친 풍파를 일으키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모두 괴로움'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해진 팔만사천법문이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한 임시방편인줄 모르고 그것에 얽매여 알음알이를 내고 그것이 옳은 법이라고 시비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마음의 당체(當體) 그 밑바탕에서는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으로서 같아지니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된다. 이 당체(當體)를 벗어나 한 생각 움직이면 바로 근본 뜻에 어긋나니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 선사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혜림사라는 절에 묵게 되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라 방에 불을 피우고자 하였으나 나무가 없었다. 마침 나무로 만든 불상이 있기에 도끼로 쪼개 불을 때버렸다. 뒤늦게 이 일을 안 절 원주가 노발대발하자

운문 스님이 "석가모니를 때려잡겠다" 한것은 본디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중생 위한 자비심

"한 생각 움직이면 근본 뜻에 어긋나느니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다. 이 경계에 도달해야 앉아서도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다 끊고 생사의 빠른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다. 위급한 순간에 어지러운 경계를 정리한 이것은 마치 단하(739~824) 선사가 나무로 만든 부처를 불살라 버린 것과 같고, 운문 스님이 부처를 때려잡아 개밥으로나 던져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으며, 노파가 문을 닫고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이 다 삿된 법을 꺾고 바른 법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렇더라도 끝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나 조사도 원수처럼 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처와 조사들이 이 단하는 부지깽이로 불타버린 재를 뒤적이며 "부처님 사리를 찾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나무 불상에서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오?" 하니, "사리가 안 나올 바에야 그게 나무토막이지 무슨 부처님이겠소?"라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것이 나무로 만든 부처를 불살라 버렸다는 '단하소목불(丹霞燒木佛)'인데 이 이야기는 <오등회원(五燈會元)> 5권에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날 때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며 이 말을 찬탄했는데 운문 선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아기를 몽둥이로 때려잡아 개밥으로나 던져 주고 세상을 태평케 했겠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선지식들이 "아! 운문이야말로 나 홀로 존귀하다는 유아독존의 뜻을 잘 설명했구나. 과연 부처님의 제자답다"라고 칭찬하였다. 이것이 운문 스님이 부처를 때려잡아 개밥으로나 던져 주겠다고 하던 '운문끽구자(雲門噢狗子)'인데 이 이야기는 <선문염송(禪門拈頌)> 1권에 나온다.

부처님이 사위성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나왔으나 성 동쪽에 살고 있던 한 노파는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자 노파의 열 손가락 끝에서 부처님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이 문을 닫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노모불견불(老母不見佛)'인데 이 이야기는 <오등회원(五燈會元)> 1권에 나온다.

노파의 손가락 끝에 나타난 부처님은 누구라도 저마다의 성품에 다 갖추어져 있는 '자성불(自性佛)'로서 참 부처님이다. 손가락 끝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까닭은 노파가 모든 집착을 벗어나 노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가 참 부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 부처가 아닌 형상으로 나타난 석가모니 몸에 집착하고 그가 한 말에 집착하여 참 부처를 보고 찾으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단하는 목불을 태우고 운문은 석가모니를 때려잡으며 노파는 석가모니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성품에 본디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만 부처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의 표출이다. 중생들의 잘못된 소견들을 깨뜨리고 올바른 앎을 드러내려는 방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게송으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常憶江南三月裡 鷓鴣啼處百花香.

언제나 저 강남 춘삼월이 그리우니
자고새 지저귀는 곳에 온갖 꽃향기.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윤장대(輪藏臺)

예천 용문사에는 보물 제684호로 지정된 윤장대(輪藏臺)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윤장대 중 가장 오래된 예천 용문사 윤장대는 높이 4.2m, 둘레 3.3m의 대형 윤장대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마루 밑에 회전축의 기초를 놓고 윤장대를 올려놓았으며, 윤장대 지붕 끝을 건물 천장에 연결했다.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1기씩 놓여 있는데 화려한 팔각정자 형태를 하고 있다. 아랫부분은 팽이모양으로 뾰족하게 깎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난간을 두른 받침을 올린 후 8각의 집모양을 얹었다. 8각의 집모양에는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각 면마다 8개의 문을 달았다. 문은 좌우로 구분되어 4개의 문에는 꽃무늬 창살이 다른 4개의 문에는 빗살무늬 창살이 정교하게 꾸며져 있다. 문을 열면 8면에 서가처럼 단이 만들어져 경전을 꺼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장(輪藏)은 전륜장(轉輪藏)의 준 말이다. 전관경장(轉關經藏)이라고도 한다. 대장경을 소장해 두는 곳간이란 뜻의 윤장대는 경전을 담는 대층감(大層龕, 서가)의 중심에 돌아가는 기둥을 세워서 8면의 서가를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다.

중국 양나라 쌍림대사 전흡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한다. 애초에는 승려들이 경전 등을 보관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팽이처럼 회전하는 구조를 꾸몄는데, 후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 돌리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4>

정신분석과 불교-4

프로이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증상과 치료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하나하나의 사례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을 발견하고 정립하는데 커다란 계기로 작용함은 물론 증거도 되었다.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대하는 자세는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 수행자의 모습과 흡사하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증상을 앞에 놓고 "이 뭣고" "이 뭣고" 하며 그 심리적 기제를 풀 때까지 의문의 꼬리를 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희열을 느끼며 그 원리를 이론화하고 공식화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 덕분에 정신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처럼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고도 비슷한 증상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유연상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는 위빠사나와 유사

프로이트의 치료 작업과 간화선 수행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간화선에서는 인생이라는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반면, 프로이트는 환자의 심리적 문제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화선에서는 스승이 화두를 제시하고 수행자 본인이 참구해 가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프로이트가 화두[문제] 참구한 뒤 거기서 얻어낸 답을 환자에게 알려 주는 방식이다. 환자의 역할은 화두[문제 증상]의 제공자로서 끝날 뿐이다.

정신분석에는 세 가지 치료 규칙이 있다. 내담자의 자유 연상, 분석가의 '고르게 떠 있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 그리고 절제다.

프로이트는 초기에 최면으로 노이로제 증상을 치료했다. 그러나 최면 치료는 환자의 잊혀진 심리적 사건을 기억해 내고 감정을 발산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문제의 원인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고심하던 프로이트는 '자유연상기법'을 발견해 냈다. 환자 자신이 그 시간의 주제를 선택하여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프로이트는 환자가 제시하는 무의식적인 내용의 조각을 의식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 둘 다 깨어서 작업 동맹을 맺으며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유연상을 할 때 분석가는 '고르게 떠 있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특별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자가 말하고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리고 분석가의 내부에서부터 떠오르는 것 등 이 모든 것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法]을 매순간 바로 거기서' 통찰하는 위빠사나 수행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체자가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인 환자가 아니라 치료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위빠사나 수행은 무상 · 고 · 무아를 체험하는 반면,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우리 축산물 애용으로 가족 건강지키고 축산 농가 살리자

우리 축산물의 사육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안전성을 인식하고 친근감을 가질수 있도록 직접 목장을 방문함으로써 소, 돼지, 닭 등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체험견학입니다.

◆참 가 자 : 축산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분들의 노고를 직접 느끼고 우리 축산농가를 바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
◆일 시 : 2007년 8월 24일(금) 09:00~20:00
◆장 소 : 평창 영월 축협 생축장(평창읍), 축산과학원 한우 시험장(대관령)
◆출발시간 : 2007년 8월 24일(금) 오전 7시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신청 ☎ 02)738-5586, 5568 / 팩스 02)738-7576
◆신청마감 : 2007년 8월 21일(화) 까지 (선착순 120명)

● 주관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주최 :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후원 : 농림부

미래를 여는 행복한 가정상담소 · 이혼예방센터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터전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가정과 행복한 사회(정토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행복한가정상담소 ☎02)735-0406 • 이메일 : kwba0518@hanmail.net
이혼예방센터 ☎02)735-0407 • 상담시간 : 월~금 10:00~18:00

행복한 가정상담소 · 이혼예방센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014호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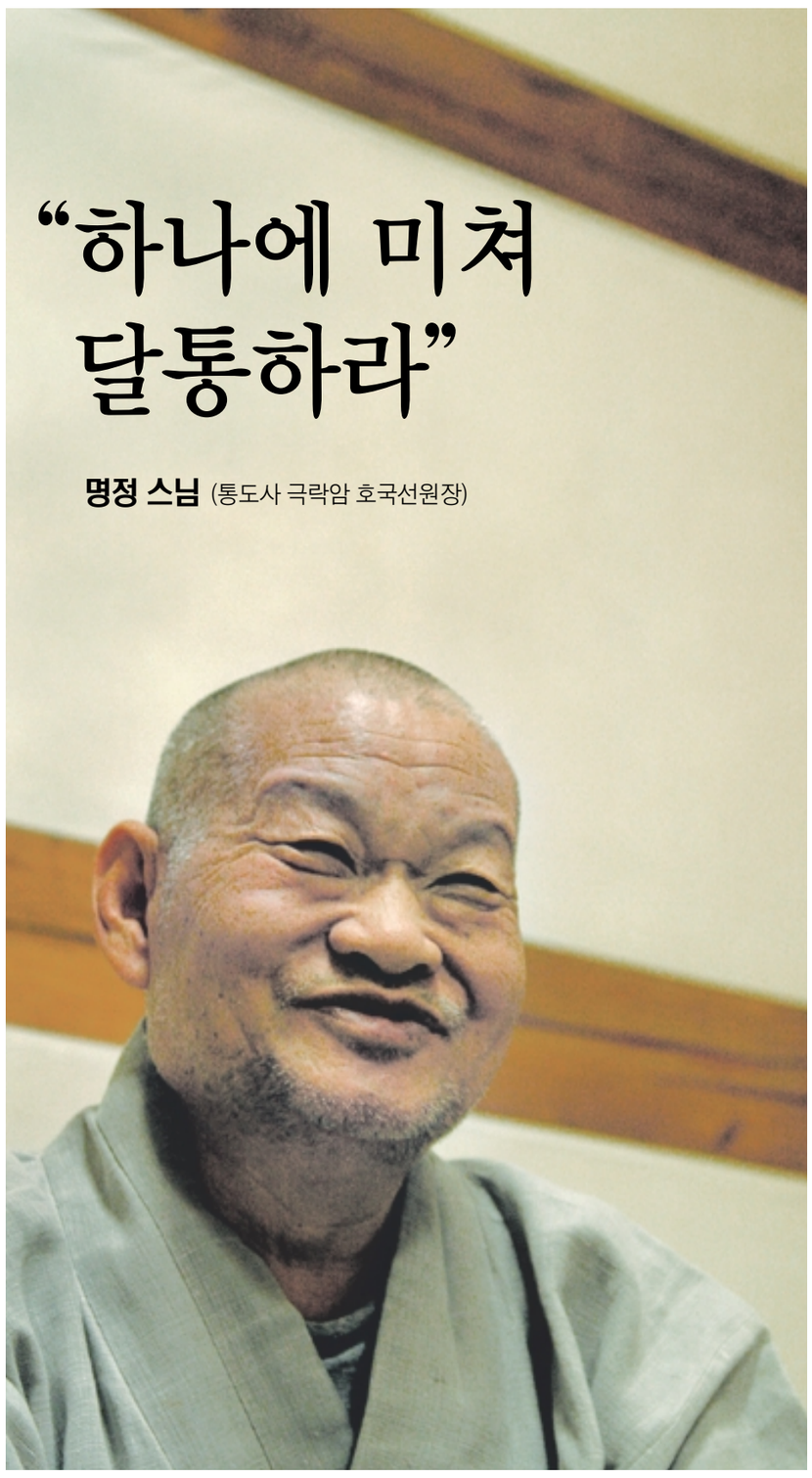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모집인원 : 약간명 ◆학 기 : 2학기
◆개강일시 :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전 화 : 02)496-3952~3

<무료 맹장치료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하나에 미쳐 달통하라”

명정 스님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



‘막신일호’ 근본 바탕 찾는 수행도 차 우리는 일도 미쳐야 흘려 쓴 경봉 스님 법문 책으로 낼 정도로 초서 번역 탁월 선지식들과 주고 받은 편지글 등 모아 유물관 건립 예정

차가 참 진하다. 색도 향도 맛도. 명정 스님의 방에서 마시는 차 맛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 난다. 혀끝에 알싸하니 감도는 차 맛과 향도 좋지만 차를 다 넘긴 후 입에 고이는 침이 달콤하기 그지없다. 침이 절로 꿀꺽 넘어간다.

명정 스님의 방. 스님은 다관 가득 차를 붓는다. 보통의 경우라면, 십 수번은 족히 우려먹을 수 있는 양이다. 찻잔에 차를 따르더니 찻잔을 든다. 잔을 부딪치며 하시는 말씀. “건배!” 방안에 웃음이 한바탕 인다. 주욱 들이키고 잔을 내려놓으며 이어지는 말씀. “누가 탔는지 맛 조오타!”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장. 근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경봉 스님을 시봉했고, 선방에서의 정진에도 치열했던 명정 스님. 경봉 스님의 문집은 물론 <경허집><신심명>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명정 스님에게 사람들은 근엄하고 심각한 모습을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갈 때가 많다.

“일생을 통해 스승을 만난 행복이 클 것 같다”며 스승 경봉 스님과의 일화를 청하자 대뜸 새끼손가락을 펴 보이며 “난 이거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만난 얘기라야 짜릿짜릿했다 어쩌구저쩌구 할 말이 많을 텐데…”라며 짐짓 심각한 표정이다. 새끼손가락은 애인을 말함이다.

스님의 대화법은 독특하다. 물음에 직답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드문드문 느리게 이어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가서야 답이 나오는 식이다. 한참 후에야 그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답은 피하되 핵심은 고스란히 담고 있어 잡스런 맛이 없으면서도 담백하고 진한 차 맛을 닮았다. 얘기를 듣는 동안, 침이 꿀꺽 넘어가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차 우리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 해. 똑 같은 양의 차를 넣고 물 온도도 스님이 하는 그대로 했는데 그 맛이 안나요 그러는데, 우습지. 하루 이틀에 그 맛이 나는 게 아니지.”

스님에게 차를 우리는 일은 스승 경봉 스님에게서 받은 화두만큼이나 지중한 수행방편이었고 수행의 열매 그 자체였다. ‘한 잔의 차에 선가(禪家)의 살림살이가 모두 들었다’는 말을 빌지 않더라도 출가 이후 지금까지 차를 우리며 그 안에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명정 스님의 차 맛이 나왔다.

막신일호(莫神一好).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통달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고 완전한 것은 없다는 순자의 말이다. 그것은 명정 스님이 허리춤에 차고 다닐만한 금언이라고 여기는 말이다. ‘하나를 좋아하는 것’ 그 하나를 만나는 일이 어디 쉬우랴? 스님에게 그 하나는 자기 존재에 파고드는 일이었고 근본 바탕을 찾는 그 ‘하나’속에 치열한 선방 수행도, 스승을 모시며 차를 우리는 일도 모두 들어 있었다.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달통하는 것’ 그것이 스님의 일상이었다.

스님은 손꼽힐 정도로 초서 번역에 아주 능하다. 흘려 쓴 경봉 스님의 법문 번역은 물론, 경봉 스님과 당대 선지식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책으로 펴낼 수 있었던 것도 스님의 초서번역 실력과 뛰어난 문장력 덕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다.

“내 책상 앞이 둘러 꺼졌어. 의자에 앉아 꽤나 끙끙거렸나봐. 이걸 어떻게 풀이 해야 하나, 끙~ 이게 무슨 뜻인고, 끙~” 스님의 책상 앞 의자가 놓였던 자리가 정말로 패여 있다. 스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책상머리에 앉아 씨름했을지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문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간만에 진지한 고백을 한다.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 원앙수출종군간(鴛鴦繡出從君看) 막파금침도여인(莫把金針與渡人). 원앙새를 수놓아 보일지언정 바늘이야 주지 말게나. 원앙새를 수놓는 것이 일호(一好)의 끝경지야. 그런데 그 일호는 자기가 미치고 환장해서 헤매고 땀을 흘리며 찾는 보물이지 바늘을 챙겨 준다고 수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 바늘을 줘봐야 쓸데가 없는 거지.”

명정 스님이 공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라며 영구 어투를 흉내 내는 이유는 바로 바늘을 건네 봐야 쓸모가 없다는 말일게다. 하나에 미쳐 한곳으로 깊이깊이 푹 빠져버릴 수 있는 마음속의 불씨는 스스로 지펴야지 어디 가서 물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별난 이력도 많다. 한때 스님은 탁구를 무척 즐겼다. 현직 선수마저 코를 납작하게 할 정도의 실력자인 스님은 탁구를 시작하면 서너 시간은 예사였다. 27살 여름, 송광사에서 한철 살 때는 대들보를 짊어지고 다닌 일화도 있다. 대처승 정화가 덜 돼 목수들이 설치고 해서 목수들 기 꺾으려고 일부러 그랬단다. 어림잡아 쌀 네가마 무게의 대들보를 짊어지는 것을 본 이후 목수들이 꼼짝 못했다고 한다. “척추 엑스레이 찍었는데 마디마디가 다 마모됐다고 해. 젊어서 왜 그리 지랄병을 하며 컸는지 후회스러워. 하하하!”

현재 호국선원에는 큰방에서 21명, 후원에서 10여명이 정진 중이다. 대중들에게 엄하냐는 질문을 하자 대답대신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송광사에서 입승보던 스님이 소임 맡아 놓고 가버려서 내가 소임 사는데, 통광 스님이 나한테 애들한테 잔소리 지나치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때만 해도 성질이 눈에 안 맞으면 어쩌구저쩌구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배를 끌고 산으로 가도 그런 일도 있구나 하지만 말이야.” 후학들을 대하는 스님의 일상을 짐작케 한다.

스님에게 스승 경봉 스님은 일생을 바꿔놓은 둘도 없는 ‘애인’ 이었다. 스승과의 첫 만남을 얘기하기 위해 스님은 1959년 10월 24일 해인사로 출가했던 날의 얘기부터 꺼냈다. 스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쩌구저쩌구’의 사연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가할 당시에 금봉 스님, 고봉 스님, 효봉 스님, 경봉 스님 등 ‘봉’자 돌림 스님 10여명이 계셨어. 수좌들끼리 수군수군하는 소리 들으니 봉이 십봉이 넘었는데 어디로 갈까?하는 거야. 함께 공부하던 스님 말을 듣고 해제 며칠 뒤에 조그만 괴나리봇짐하고 이불 싸들고 도망치듯 해인사를 나와 경봉 스님을 찾아 통도사로 향했지.”

커다란 봉우리를 찾아 떠나온 길의 끝에 극락암이 있었다. 고속버스가 없던 시절, 그렇게 스님은 버스를 타고 물금에서 내려 포교당서 하루 밤을 보내고 양산까지 20리를 꼬박 걸어야 했다. 다시 양산에서 신평까지, 그리고 나무 한그루 없이 이어진 극락암까지 가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노장님 만나러 온 거니까’하며 일심으로 또박또박 걸어와서 마주한 극락암.

“삼소굴 유리문이 드르륵 열리고 우리 스님을 처음 친견했는데 키는 190㎝가 넘지, 스님 모습은 노장이 아니고 아주 자애스러운 의사 할아버지 같았어. 절을 하고 찾아뵌 연고를 말씀드리자, 손도 만져보시고, 시시콜콜 다 물어보시더니 시봉 하라고 하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시봉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후원에서 채공을 6개월 하다가 시봉을 시작하게 됐지.”

입영통지서가 나오기까지 5년 동안 시봉했다. 입영 직전까지 49재 준비를 말끔히 마쳐놓고 스님께 “스님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니 “너 정말 갈래?” 하셨다고 한다. “아, 글쎄 군대가 정말 가고 가짜로 가고 그러나? 노장님이 그 당시 돈으로 500원을 주셨어. 그 돈으로 PX가서 빵 사먹고 그랬어.”

유난히 기록을 꼼꼼하게 했던 스승이었고, 당대의 선지식들과 서간으로 선문답을 주고받았던 경봉 스님이었지만 제자 명정이 없었다면 경봉 스님의 유필들이나 서간문들은 사장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흘려 쓴 스승의 글에 담긴 선향들을 아름답게 풀어 책으로 펴낸 제자는 스승 입적 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승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게 하고 있다. 스승의 입적에 대한 물음에 끝내 답조차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인지 모른다. 재차 여쭈었지만 스승 입적 후의 얘기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도 스승이 책갈피 안쪽마다 ‘증명정(贈明正)’이라는 글과 함께 게송까지 덧붙여 남겨준 수많은 책들과 편지글, 시, 친필들에 둘러싸여 스승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리라.

스승의 유품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명정 스님은 조만간 극락암에 유물관을 지을 예정이다. 스승 경봉 스님의 친필들과 한암 스님, 용성 스님, 춘성 스님, 운봉 스님, 설봉 스님, 벽암 스님, 용성 스님, 운허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과 주고받았던 편지글 등을 일반에 선보이기 위해서다.

여름과 가을의 뚜렷한 경계는 없지만 계절은 분명 오간다.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을바람이 선들 불어오고 아, 가을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통도사 극락암에서 명정 스님을 만나 뵙고 돌아온 다음 날, 분명 한여름임에도 문득 가을을 느꼈다.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드는 순간의 느낌, 혹은 스님의 방에서 차를 넘긴 뒤 입안에 고였던 달콤함의 맛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때 아닌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스님이 우려낸 한 잔의 차를 마셔본 사람이라면 이 ‘가을’ 느낌을 짐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글 · 사진=천미희 객원기자





스승인 경봉 스님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명정 스님.

명정 스님은 1943년 김포에서 태어났다. 59년 해인사로 출가했고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60년부터 82년까지 경봉 스님을 시봉했으며 70년대 후반이후 극락암에서 머물며 경봉 스님의 법문집 <경봉스님 말씀> 큰스님들의 서간문을 엮은 <삼소굴 소식>을 비롯 <차 이야기 선 이야기> 등을 펴냈다. 최근 스님은 경봉 스님 사진첩 발간 준비를 거의 마쳤다.

선지식을 찾아서 명정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한암 스님(3)

만공, 납자들을 지도함이 어떠하오
한암, 가난뱅이가 묵은 빚을 생각합니다
만공, 늙은 첨지는 입이 가난하느니라
한암, 도둑놈 뒤에 활줄을 당김이라

만공(滿空, 1871~1946) 선사가 묘향산에 있던 한암(漢巖, 1876~1951) 선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이별한 지 10여 년이나 되도록 서로 거래가 없었도다. 구름과 명월과 산과 물이 어디나 같건만, 북녘 땅에는 춥고 더움이 고르지 못할까 염려되오. 북방에만 계시지 말고 걸망을 지고 남쪽으로 오셔서 납자들이나 지도함이 어떠하겠소?"

한암 스님은 만공 선사에게 이렇게 답했다. "가난뱅이가 묵은 빚을 생각합니다."

'후학양성' 간청 선문답으로 사양
'身心脫落' 경지의 자부심 드러나

만공 선사가 다시 답했다. "손자를 사랑하는 늙은 첨지는 자연히 입이 가난하느니라."

한암 스님이 다시 답했다. "도둑놈 간 뒤에 활줄을 당김이라."

만공 선사가 다시 답했다. "도둑놈 머리에 벌써 화살이 꽂혔느니라."

만공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남쪽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나서달라고 청하자, 한암 스님이 선문답으로 사양하는 장면이다. 한암 스님은 가난뱅이가 묵은 빚을 생각할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하다고 정색을 한다. 마음이 가난해져 '일체의 분별심을 텅 비워버린 경지(身心脫落)'여서, 한 마디도 설할 법이 없다는 자부심이 묻어난 말이기도 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요"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듯이, 선가에서도 마음이 가난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대표적인 법문이 향엄 선사의 게송에 보인다.

앙산 선사가 향엄 스님이 기왓조각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네가 다다른 심득(心得)의 경계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향엄 스님은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 가난은 송곳 세울 만한 땅은 있었지만, 올해엔 송곳조차도 없네"라는 게송으로 답했던 것이다.

<맹자>에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이 적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養心莫善於寡欲)"는 말이 있듯이, 소욕지족(少欲知足)은 마음공부의 기본이다. <유교경>에서는 "만일 모든 고뇌를 없애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족(知足)을 관해야 한다"고 했고, <법구경>에서는 "지족은 제일의 부(富)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같은 한암 스님의 가난뱅이 타령에, 만공 스님은 "할애비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손자를 아끼듯이 후학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친다.

그러자 한암 스님은 "(내 뜻은 이미 밝혔으니)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마시라"고 한 방 먹인다. 만공 스님 역시 선지식인지라 고이 보내줄 리 없다. 도둑놈 심정은 도둑놈이 가장 잘 알기에, '그대의 본래면목에 화살을 적중시켰다(以心傳心으로 뜻이 통했다는 의미)'고 되받아친다. 장군멍군이요 피장파장이다.

선가에서는 '천하와 우주를 훔치는 위대한 작가 선지식'을 도둑놈이라 표현한다. 자아의식과 분별심, 번뇌 망상을 텅 비운 무심도인은 만법과 하나가 된 경지에 살기에 우주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든 도둑으로 상징한다. 불법을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천하를 훔치는 대도(大盜)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성우 객원기자**

번뇌·망상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休~'

부안 내소사의 '트레킹 템플스테이'



모처럼 휴가를 맞은 시민들이 저마다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 세속에서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자 잠시 내려놓았던 짐을 또 다시 짊어지고 만다. 세간이나 출세간에서나 '비우고 쉬는' 것은 마음공부의 요체이다. 온갖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상쾌하고 편안하게 쉰 휴가 때의 텅 비고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지난 8월 1~3일,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에서 6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트레킹 템플스테이는 '내려 놓는다'는 생각 없이 방하착(放下着) 공부의 묘미를 맛보게 한 수련회였다. 해안(海眼, 1901~1974) 선사가 호남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선찰이자, 아름다운 전나무숲을 자랑하는 내소사의 트레킹템플스테이는 사람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한 이색 수련회였다.

2일 오전 9시 내소사에서 출발한 트레킹은 말이 트레킹이지, 능가산 봉우리에 오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상에 오르는 것에 조급해 하고 집착할 이유가 없음을 일깨웠다. 야트막한 산길과 계곡 길을 따라 자연을 벗 삼아 천천히 걸을 뿐,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 나무, 바위, 폭포 등 자연과 대화를 나누며 사색에 빠져든다. 녹색의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와 경치에 빠져 걷다보면 어느새 속세에서 품고 온 잡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다. 숨이 차오르면서 말도 사라지고 생각도 끊어지다 보면 어느새 자연이 설하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을 듣고 있는 것만 같다.

내변산탐방지원센터에서 봉래구곡을 따라 실상사지, 선녀탕, 분옥담을 지나 천천히 올라가니 직소폭포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휴식 시간에는 처음 보는 이와 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온 일행들은 집에서 못다 한 진지한 얘기도 나눈다. 직소폭포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국립공원 가이드는 나무와 꽃, 물고기들을 설명한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동·식물을 보며 연신 깔깔 댄다. 점심시간에는 내소사에서 직접 만들어 온 유부초밥과 김밥으로 요기를 한다. 옥수담 아래로 내려꽂히는 20미터의 폭포수 아래 발을 담그고 명상에 잠겨 있다 보면 온갖 시름이 말끔히 씻겨진다.

이어 제백이고개, 관음봉삼거리, 내소사 전나무숲길이 탐방객을 반긴다. 4시간여의 트레킹은 조금 땀이 날 정도로 힘들지 않은 코스였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70대 노인까지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숲길이었다. '산이 있어 오른다'는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않기에, 보통의 등산과는 달랐다. 산과 계곡을 여유롭게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내변산의 역사도 배웠다. 원효·의상 스님, 부설거사가 수행하던 유적들은 이곳이 모악산과 함께 호남의 양대 성지임을 확인시켰다. 대자연과 하나 되어 일상의 번뇌와 망상을 말끔히 씻어준 트레킹은 수행이 아니라, 그 야말로 휴행(休行)이었다.

일체의 고정관념과 집착에 사로잡힌 '나(我相)'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참나'로 거듭나는 여정이었다. 수행이란 느낌을 주지 않고도 저절로 마음을 비우게 한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들의 모든 일이 다 소생(蘇生)되게 하소서'라는 창건(633년)주 혜구두타 스님의 원력 때문일까. 예불, 참선, 발우공양, 차담(茶談), 숲 체험놀이, 108염주 꿰기 등 수련회 프로그램 역시 금상첨화로 내방객들을 불교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수경심(30·서울 논현동) 보살은 "자연과 동화되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트레킹수련회의 장점이다"며 "무교나 타종교인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禪)은 '참으로 쉬는(休)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 고승 허운(1840~1959) 대사는 '쉼이 곧 깨달음(歇卽菩提)'이라고 말했다. 임제 선사는 "그대들의 목전에서 작용하는 자네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모든 망념을 쉬고 또 쉬어(休歇) 무사히 지내는 것이 제일이다. 이미 일어난 망념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망념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고인들의 가르침대로 휴식과 일이 둘 아니게 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063)583-3035 **부안=김성우 객원기자**

"욕심버리면 번뇌 없어"
■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구하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요. 뭔가 얻으려니까 괴로움이 생기지요."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사진)은 밖으로 찾고 구하며 헐떡이는 치구심(馳驅心)을 쉬는 게 참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승님(해안 선사)께서는 불법의 대의(大義)를 묻는 질문에 '나쁜 것도 버리지 않고,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철산 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최후의 집착마저 쉬라고 말했다. "찾고 구하는 마음을 쉬어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청정본심만이 드러납니다. 견성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버리세요."

철산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대상과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수행이다"고 말했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100일 출가수행**=문경 정토수련원은 '제3기 100일 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출가는 〈금강경〉〈육조단경〉 강의, 일만 배 정진, 참회와 포살 등을 통해 자기 발견의 길,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공부한다. (02)587-8990

●**스님과 함께 좌선수행**=남원 실상사 회림원은 스님들과 함께 하는 좌선템플스테이를 8월 16~19일 실시한다. (063)636-3370

●**간화선 입문과정**=조계종 중앙신도회 인개개발원은 8월 27일~11월 12일(매주 월 오후7시~9시 30분) 조계사 극락전에서 간화선 입문 제6기 일반과정(11주)을 연다. 선지식 친견, 화두 받기, 문답, 참선 실수 등으로 진행. (02)735-2428

●**철야 염불정진**=청계산 정토사는 8월 18일(매월 셋째 토) 오후 8시 철야 염불정진 법회를 연다. 보광 스님이 염불정진을 지도하고 수행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 문답한다. (031)723-9797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요.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컨설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

‘긍정적 사고’가 성공을 부른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㉗ ‘마음’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의 마음가짐(가치관, 태도)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 명의 대학생이 답해 준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성공의 문을 여는 긍정적 인생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한다. 결정적인 것이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들, 그 반대로 풍족한 가정형편 속에서 안일하고 나태해져 결국 보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은 180도, 아니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투정하며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물이 반쯤 채워진 유리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라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뭐야, 물이 반밖에 없잖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한 사람은 지금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긍정하는 반면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한 사람은 현실에 불평불만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전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조그만 기쁨과 감사를 찾고 고난을 기회삼아 헤쳐 나갈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어려움을 불평하며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결국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알며 위기를 기회 삼아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값지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L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관’

“인생을 변화시킬 커다란 힘”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가며 하루하루 행동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흔히 학생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라든가, “저 아이는 유학을 다녀왔으니까 내가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라는 식의 말들을 한다.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주변의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지박약’이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커다란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J군)

긍정적인 마음이 행복의 열쇠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의 힘은 무척 크다고 본다. 만약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모두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노력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친구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시도조차 안 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친구는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매사에 열심히 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 속에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판단력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의 좌우명을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정하여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대학생인 지금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더불어 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면 나의 인생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E양)

부처님 말씀에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하셨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힘차게 살아나가길 간절히 기원 드린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 **2007 참사람의 향기 단기출가수행=**해남 미황사는 8월 18~25일 7박8일간의 단기 출가수행 체험을 준비한다. 전통 화두 참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2007 참사람의 향기는 참선 외에도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061)533-3521

● **구룡사 불교대학 제39기 모집=**서울 구룡사가 제39기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대학 제39기는 9월 4일 개강한다. 경전반은 9월 12일 개강 예정이다. 한편 10월 중 창립 예정인 거사림회 회원도 모집한다. 구룡사에 다니는 남자신도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2)575-7766

● **흥국사 ‘참 나를 찾아서’ 주말 템플스테이=**고양 흥국사는 8월 18~19일 주말 템플스테이 ‘참 나를 찾아서’를 진행한다. 사찰 예절습의, 발우공양, 연꽃들 만들기, 연등 탑돌이, 새벽예불, 참사랑 자아기도법, 새벽숲길 걷기명상, 참 나 찾기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일반인은 3만원, 중·고등학생 2만원, 초등학생은 1만원이다. (02)381-7970

● **〈금강경〉 영어강좌 개설=**한국불교대학 관음사가 8월 18일~10월 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금강경〉 영어강좌를 개설한다. 15장으로 이루어진 〈금강경〉 영어 강좌는 영어와 우리말로 쉽게 설명해 영어 공부를 돕고자 한다. 수강료는 5만원. (011)9569-1927

● **능인선원 칠석기도=**서울 능인선원은 8월 19일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칠석기도를 봉행한다. 불가에서 음력 7월 7일 칠석은 치성광여래와 좌우 좌우보처 일광보살, 월광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날이다. 능인선원은 가내태평, 액난소멸, 자손의 수명과 복,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칠석기도를 올릴 예정이다. (02)577-5800

●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스터디 투어=**지구촌공생회는 8월 15~20일 캄보디아 캄폿주 지역을 방문해 우물사업장을 견학하는 캄보디아 스터디 투어를 떠난다. 이번 투어에서는 우물사업장 견학 외에 유치원, 초등학교, 불교사원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02)455-9596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⑧

간화선 제창 후 노동선 더욱 활발

허운 밭매고 씨뿌리는 것이 모두 禪機”

조선시대 억불 정책 속 ‘선농’ 생활화

임제 스님이 운력 중에 호미로 밭을 매다가 황벽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는 광이에 기대 서 있었다. 황벽 스님께서 “이 사람이 피로한가?” 하니, “광이도 아직 들지 않았는데 피로 하다니요” 하였다. 황벽 스님이 후려치자, 임제 스님이 몽둥이를 받아 쥐고는 황벽 스님을 탁 밀쳐 넘어뜨렸다. 황벽 스님께서는 유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유나야! 나를 부축해 일으켜라.”

유나가 가까이 다가가 부축해 일으켜 드리면서 말했다. “큰스님, 이 미친놈의 무례한 짓을 그냥 두십니까?” 황벽 스님은 일어나면서 유나를 후려갈기니, 임제 스님은 광이로 땅을 찍으면서 말하였다. “제방에서는 모두 화장하지만 여기 나는 한꺼번에 산 채로 파묻어 버린다.(〈臨濟錄〉 禪林古鏡叢書, 藏經閣 p129~130)

조동종(曹洞宗)의 원붕 선사 역시 당시 농선(農禪)의 풍광에 대해 “푸른 논두렁은 흘어져 물결에 부서지는데, 향기로운 햇볕은 떠돌아다니며 볏꽃을 살찌운다. 몸소 경작하는 가풍의 명성은 예부터 오래였고, 귀로에는 농요소리 떨어지는 햇빛 속에 흥겹다”라고 읊고 있다. 오가칠종의 농선 가풍은 뒷날 대혜종고에 의해 간화선이 제창된 이후 더욱 발전하게 된다. 간화선 자체가 언어문자로 선을 이해하려는 문자선(文字禪)과 아무일 없음에 안주하려는 무사선(無事禪) 및 앉아 있음으로 깨달음을 삼는 묵조선(默照禪)의 병폐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행주좌와의 일체 생활 가운데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방법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노동 가운데서 참구하는 활발발한 역동적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혜가 일찍이 경산총림(徑山叢林)에서 한편 ‘반야농원(般若農園)’을 경영하며 간화선(看話禪)으로 접화(接化)한 본보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화선풍과 노동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간화선의 선농병수의 선풍은 이후 계속 이어져 원대(元代)에까지 전승되고 있다. 박산무이(博山無異)는 다음과 같이 묵조사선(默照邪禪)의 선병을 지적하고 생기발랄한 노동선을 강조하고 있다.

옛 선사는 복숭아를 따다가도 문득 선정에 들고, 호미로 밭을 매다가도 문득 선정에 들었으며, 절의 자잘한 일을 하면서도 선정에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한 곳에 오래 눌러앉아 바깥 인연을 끊고 마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에야 선정에 들었다고 하겠는가. 이 를 곧 삿된 정(邪定)이라고 하니, 이는 납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다.(〈參禪警語〉 禪林古鏡叢書, 藏經閣 p36)

사실 송대(宋代) 이후 선종이 중심이 되어 불교의 명맥을 이어오던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생산에 의거해서 수행생활이 영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농겸수의 가풍은 선문의 일상사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민국(民國)시대를 살다간 근대 중국 선의 중흥조라 일컫는 허운(虛雲) 역시 이러한 전통에 입각해서 농선과 노동선의 실천을 매우 강조하며 선풍 재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여러 스님들은 날마다 힘들게 장작을 패고 농사를 짓고, 흙을 돋우고 벽돌을 나르며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지만, 도를 깨치겠다는 굳은 의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를 향한 지극한 마음은 정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參禪要旨〉 여시아문, p35)

그리고 허운은 또한 강조하기를 “물 길어 오고 나무 해 오는 일상사가 묘도(妙道) 아님이 없으니, 밭 매고 씨 뿌리는 것이 모두 선기(禪機)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리를 틀고 앉아야 비로소 공부하고 도를 닦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의 선종에도 그대로 전입되어 선문의 일상사로 정착되어졌던 것이다. 조선시대 산중에 은거한 선종만이 겨우 현사지맥(懸絲之脈)을 이어가게 되었을 때, 선종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산중에서 논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노동이 생활화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억불(抑佛)의 현실 속에서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농선(農禪)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특히 조선말에서 일제의 강점기를 살다간 용성(龍城)은 ‘반선반농(半禪半農)’의 선농불교(禪農佛敎)를 제창하게 되었다. 용성은 선농불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 생활에 힘으로 노동하고 남에게 의뢰하지 말 것”(〈大覺敎儀式〉권下, 十二覺文)을 주창하며, 선농당(禪農堂)과 화과원(華果院)을 건립하여 자급자족(自給自足)을 강조하고 있다.

아! 우리는 괭이 들고 호미 가지고 힘써 노농(勞農)하여 자작자급(自作自給)하고 타인을 의뢰치 말자. 여(余)는 차를 각오(覺悟)한 지가 이십년 전이나 세부득이(勢不得已) 하여 못하고 있다가 오육년전에 중국 길림성 옹성랍자 용산동에 수천일경(數千日耕) 토지를 매입하여 오교인(吾敎人)으로 자작자급케 하였으며 또 과농(果農)을 종사하여 오육년간을 노력중이다.(〈中央行政에 對한 希望〉 佛敎 93호, p15) (계속)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직업, 사업, 재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 (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탈춤무용극 미얄 할멈이 들려주는 우리 춤 이야기'가 펼쳐진다. 1부는 전통춤으로 관객들에게 한국춤의 멋과 흥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며 우리춤에 대한 아름다움을, 2부는 해설탈춤에 등장하는 미얄과장을 극대화하여 현대적인 무대에 어우러진 극장적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전통을 재해석했다. 8월 19일까지. (032)320-6334

충북 진천 화랑관에서는

8월 18일 11시와 15시 어린이인형극 '손오공과 우마왕'이 무료 공연된다. 이 공연은 '서유기'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내용을 인형극화 시킨 것으로 방대한 스케일과 개성 넘치는 개개의 인물들이 돋보인다. 문의 서울인형극회. (02)539-3791

전남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2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몸, 빛,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대한민국, 러시아, 독일 등 7개국이 참가해 총 17편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고, 8개국 10여 편이 별도로 광주시 일원에서 공연된다. (062)521-3223

경남 양산 양주공원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고, 청소년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를 열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청소년축제를 만들어 가기위해 '청소년 락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8월 15일이며 대한민국 응원메시지 전달하기, 광복절 퀴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진구립예술단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위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8월 25일 2시와 5시에 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된다. (02)447-024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2007세계곤충체험학습전'

어른들은 추억 담고, 아이들은 지식 쌓고



세계곤충체험학습전에서 직접 곤충을 만져보는 아이들.

나뭇잎대벌레 등 외국 곤충 전시 끝나면 보기 힘들어
설명 들으며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체험 시간도 마련

"곤충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도 물도 공기도 좋은 강원도 화천군에는 곤충들도 많다. 곤충들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화천군에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곤충잔치'를 서울 · 대구 · 전주에서 동시에 열었다. 그럼 곤충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말? 물론이다. 거기다 실제 곤충을 접하고 만져보기까지 할 수 있다. 곤충잔치의 이름은 '2007 세계곤충체험학습전(이하 곤충체험전)'이다.

사실 대도시에는 곤충들이 살만한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은 곤충을 무서워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청소년은 곤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

곤충체험전에서 어린이들에게 곤충에 대해 설명하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졌다.

"여러분,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이에 어느 어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한다.

"거미는요, 다리가 여덟 개에요. 또 머리가 슴배로 나눌 수 있어야 곤충인데 거미는 머리랑 몸만 있어요."

이 어린이의 설명처럼 신체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다리가 3쌍이며, 더듬이가 있는 생물을 우리는 '곤충'이라 부른다.

체험전을 우선 둘러보자. 장수하늘소 · 노랑나비 · 풍뎅이 등이 얼른 눈에 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곤충들이니까. 그렇다면 나뭇잎대벌레 · 귀신꽃무지 · 헤라클레스왕장수풍뎅이 · 벨리코시광사슴벌레 등은 어떤가. 어떤 아이들은 이들을 보고 놀란다.

"세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곤충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곤충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녀석들도 무척 많다. 그래서 가끔 이런 곤충체험전을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뭇잎대벌레'는 잎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중 그 실물을 볼 수 있는 나뭇잎대벌레, 정말 귀엽게 생겼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감탄이 끊이지를 않는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영락없이 진짜 나뭇잎 같다. 보호색이라고는 하지만 잎맥과 줄기까지 갖춰져 있어 무엇이 나뭇잎인지 무엇이 곤충인지 얼른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나뭇잎대벌레는요, 구아바 잎을 먹고 살아요. 태어나서 맨 처음 먹은 나뭇잎 색에 따라 몸 색깔이 정해진답니다."

이밖에도 신기한 곤충과 나비들, 박쥐 · 구렁이 · 이구아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바로 곤충체험전이다.

곤충체험전 정지연 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어떤 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곤충들이 들어왔다"면서 "외국 곤충들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시 기간이 끝나면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는다.

"그냥 표본만 보고 지나간다면 의미 없는 전시가 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한 설명을 들으시고 곤충을 직접 만져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훨씬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곤충체험전을 다 보고 난 후 어떤 아이들이 묻는다.

"곤충 이름 같은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름들이고, 사실 공부하는데도 지장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자연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존재기 때문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그리고 세상은 인간의 것만이 아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어우러질 때, 인간도 가치 있다.

이번 전시는 네 군데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 내 민속박물관,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과 대구 엑스코, 전주 전북대 삼성문회회관이 바로 그 곳. 전시 기간은 8월 24일까지. 곤충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얼른 달려가 보자. (02)501-9388, www.bugspo.com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따라해 보세요, 사슴벌레 키우기

<준비물> 사슴벌레 애벌레, 사육통, 발효톱밥

1. 플라스틱 재질의 사육통을 마련해요.
2. 사육통에 물기를 충분히 머금은 발효톱밥을 15센티미터 이상 채워요.
   주의: 꼭꼭 눌러 담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표면은 평평하게 만들어요.
3. 사육통 정 가운데에 애벌레를 넣을 구멍을 만들어요.
4. 애벌레를 구멍 속에 살짝 집어넣고 잘 움직이나 살펴봐요.
5. 뚜껑을 닫고 숨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줘요.
   사육통은 그늘진 곳에 놓아둬요.
   주의: 애벌레를 키우는 동안 3일에 1번씩 톱밥에 물을 뿌려주세요.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3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여러분 방학 알차게 보내고 있나요? 혹 오지랖 넓은 사람은 아니지요? 부족한 실력이 농익도록 열심히 해야겠지요. 방학을 이용해 실력의 칼을 벼리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오지랖 :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서희는 오지랖을 걷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박경리, 토지> 그런데 '오지랖이 넓다' 고 할 경우에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이 되지요. (넌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거냐?)(심훈<영원의 미소>)

농익다 : 과실 따위가 흐무러지도록 푹 익다. (목구멍에서 훅훅 치미는 단내에 섞여 농익은 술기운이 고개 턱을 몇 번씩이나 넘는 중이었다.)(윤흥길<완장>)

벼리다 : 무디어진 연장의 날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 (대장장이는 이글이글 타는 참나무 숯불에 쇠를 달구고 힘찬 망치질로 날을 벼리었다.)(오정희<유년의 뜰>)

꾸러기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버릇 많거나 그 일을 잘 버르집어 일으키는 사람' 임을 나타내죠. 장난꾸러기 · 잠꾸러기 등이 대표적이에요. '버르집다' 란 말은 숨은 일을 들추어 내거나 작은 일을 크게 떠벌리는 것을 뜻해요. 오므라진 것을 벌려서 편다는 뜻도 있답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나를 찾으려는 한 개인의 실존적 체험 극화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신경숙 作 '외딴방'

1970년대 서울 가리봉동 일대의 공단과 산업체 학교, 199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쓴 장편소설 '외딴방' 은 작가의 체험이 담긴 일종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픽션과 논픽션의 중간 형태로 형식은 액자 소설이죠. 한 시골 소녀가 시골에서 상경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공부한 경험을 제재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써내려가지요. 소설은 회상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으로 글쓰기에 대한 의미 탐구 혹은 성장 과정의 자기 고백을 통한 내면적 성숙을 다루고 있지요.

자전적 소설로 1인칭 주인공 시점
결말 포스트모더니즘 계열로 충분

나는 첫 장편 소설을 출간한 후 영등포여고의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하계숙의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나에게 왜 그 시절의 이야기는 쓰지 않는지 묻고 "너는 어쩐지 우리와 다르다"는 말을 한다.

며칠 뒤 나는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제주도로 떠나 16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열여섯의 나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 시골에서 상경해 큰오빠와 구로공단의 작은 단칸방에 살게 된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외사촌과 작가가 되고 싶은 나는 나란히 공장에 들어가고, 산업체 특별 학급에 입학하여 주경야독의 생활을 한다. 단칸방은 매우 좁아 대학생이 된 셋째 오빠까지 합류하게 되어 나는 가끔 옆방 희재 언니 신세를 진다. 한편,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노조원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나와 외사촌은 우리를 도와준 노조 언니들을 배신하고 결국 노조에서 탈퇴하고 만다.

학교에서 도둑으로 몰린 내가 쓴 반성문을 읽으신 선생님께서 소설을 써 보라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주셨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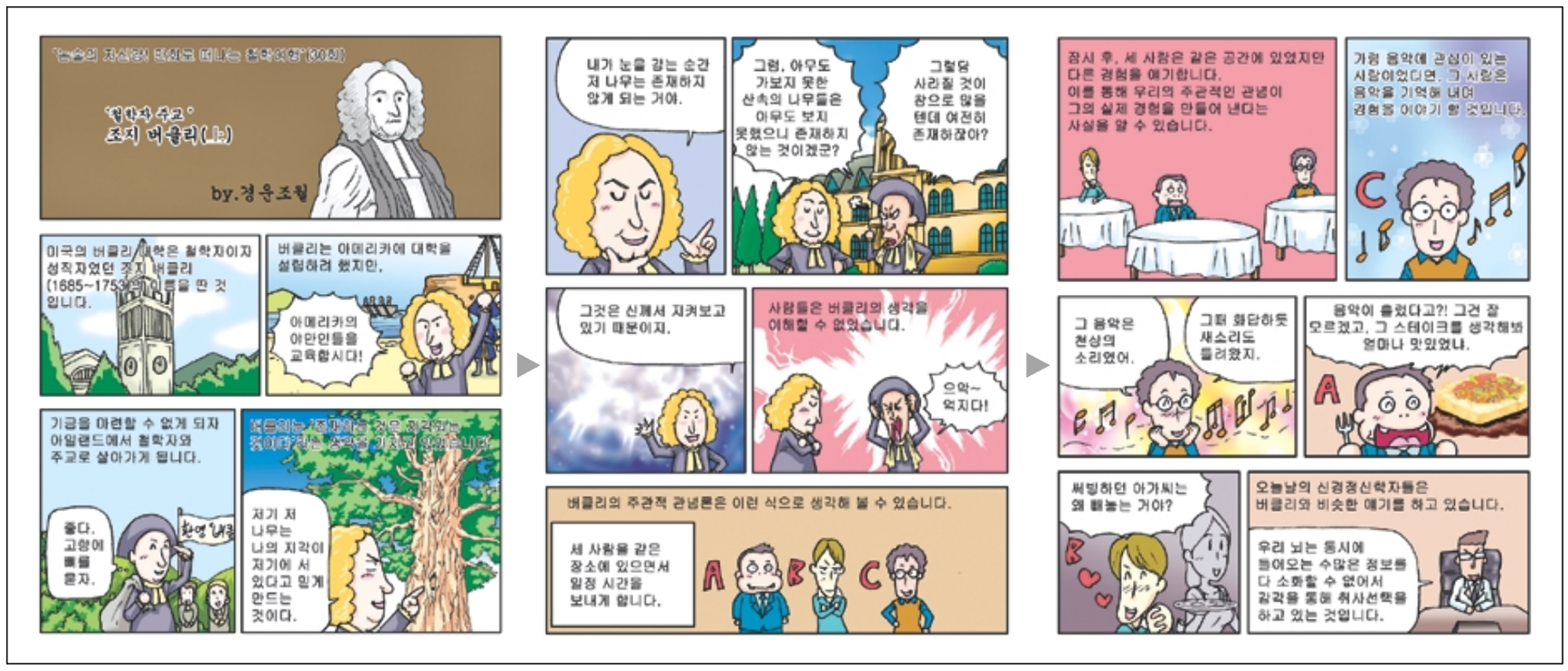
내가 18살이 된 어느 날, 희재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의상실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의상실에서 근무하던 남자와 동거를 한다. 큰오빠는 그런 희재 언니를 못마땅해 하고 내가 그 방에 놀러가는 것을 싫어한다. 광주사태가 일어난 그 해, 큰오빠와 셋째 오빠는 크게 싸웠고, 나의 남자친구 창은 광주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한다. 노조는 해체되고 월급은 자꾸 체불되던 그 때, 외사촌은 공장을 그만두고 동사무소에서 일하게 된다. 외사촌은 시골에서 올라온 여동생을 데리고 따로 방을 얻어 나가고, 큰오빠는 충무로 발령이 나서, 나는 외딴 방에 홀로 남게 된다.

나는 큰오빠의 배려로 공장을 그만두고 대학갈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진 희재 언니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만다. 자신의 방안에서 자살한 희재 언니의 시신을 목격한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방을 뛰쳐나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후 큰오빠가 취직을 하여 우리는 방 두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간다. 나는 서울예전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 글쓰기에 대한 꿈을 이어간다. 세월이 흘러 큰오빠는 결혼을 했고 다시 그 외딴 방에 갈 일은 없었다. 작가가 되어 첫 장편 소설을 펴낸 나는 지금 희재 언니를 떠올리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다시 고민한다.

소설 안에 1970년대라는 시대적 풍경이나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이 얼핏 보이기는 하지만 사회성보다는 개인의 내적 체험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요. '내성의 문학' 이 갖는 특징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지요.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삶과 뒤섞여 글 쓰는 현재의 나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교차와 긴장 속에서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은 아픔의 크기만큼이나 그 성찰의 깊이가 커지고 있어요. 또한 '외딴 방' 은 개발 독재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상징하나 암울했던 1970년대 상황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적 체험을 형상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글을 쓰는 외로운 한 영혼을 만나보세요. 글쓰기에 대해 질문하는 열려 있는 결말도 포스트모더니즘 계열로 올려놓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영남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쓴 글

영남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어린이들이 집을 떠나 법당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부처님과 친구들과 지내며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고 아침공양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 편지쓰기를 했어요. 아직 어린이인 법우님들이 하룻밤 엄마품을 떠나 잠을 자며 무슨 생각들을 했을지 어디 볼까요?

<5학년 유정이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 작은딸 유정이에요.
여기는 불교대학인데 불교대학에서 편지쓰기시간이 있어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인데 제가 더 잘 해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공부시키려 일하시는 것 보고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하려는 것 아세요?
요번 기말고사 때도 아버지가 힘드시게 일 하시는 것 보고 더욱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싸랑해요!!♡♡

<5학년 수은이는> 어머니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 큰딸 수은이에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알아요, 항상 힘드시다는 것.
불교대학에서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 액자도 만들고, 별자리도 만들었어요.
근데 야광이 나지 않았어요.
퀴즈도 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 요즘 힘드시죠? 알아요~♡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두 분 앞으로 싸우지 마시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네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영 · 원 · 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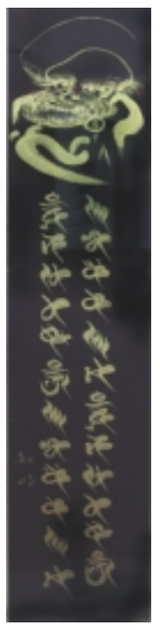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황토 /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자연상태에서 건조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어혈푸는데 탁월 ※임산부 산후조리에 드시면 효과 탁월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약왕사 9증9포 홍삼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토종 오가피엑기스 15만원 90ml 60포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판매수익금은 약사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 371-6665, 010-2513-6665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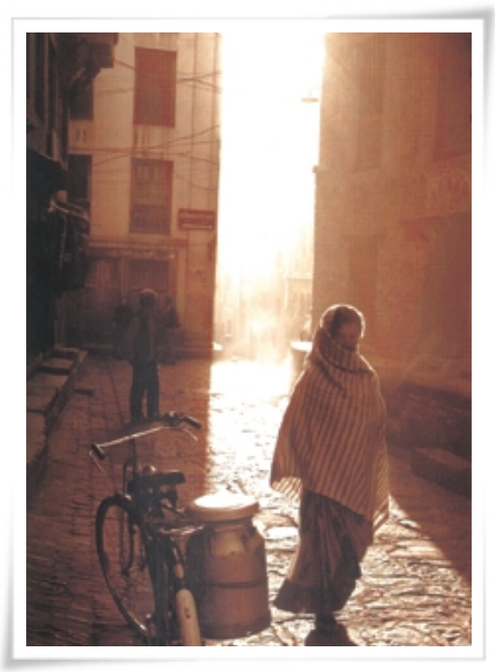
비방침술 특별공개
류마치스(봉독액 요법), 중풍 예방법, 중풍 치료법,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산질치료법
▶일시 : 9월 1일(오후 5시부터) ~ 9월 2일까지
▶보시금 일백오십만원, 봉독액 20회분 증정함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만성두통, 견항통, 오십견, 요실금, 구안와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풍치, 아토피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무릎 관절통, 손, 발목관절통, 만성체증
비결 침술로 1회~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수 있습니다.
▶일시 : 9월 15일(오후 5시부터) ~ 9월 16일까지
▶보시금 일백만원(선입금 미리예약)
농협 457040-56-087617 홍점순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016-552-2159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의 기적같은 삶



신도 버린 사람들
나렌드라 자다브 지음
강수정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1000원

인도 불가촉천민 신분 극복하고 세계 경제 좌우하는 지도자가 된 '나렌드라 자다브' 가족의 일대기



인도의 최하 계층 불가촉천민(달리트, 不可觸賤民). 브라만(사제),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상인), 수드라(노예)로 구분되는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카스트. 상위 계층과는 살갗이 닿는 것도,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한 우물을 먹는 것도, 수도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을의 야경을 돌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축의 시체를 거두는 일을 하거나 길을 쓸고 상층 카스트들의 잡스런 심부름을 하는 것이 임무다. 그리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어먹고 천을 얻어 입을 권리만 보장 받는다.

상위 계층은 그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면서 "내 집안의 모든 악한 기운도 가져가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얹어 준다. 그들은 그 음식으로 늙은 부모와 아내를 먹이고 자식을 키운다. 그들은 불가촉천민, 마하르다.

"무지개가 뜨려면 비와 햇살이 모두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불가촉천민이 3000년간 짊어지고 온 '운명적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친 일생을 떠받쳐 준 신념은 아름답다.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어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의 관습과 그 밑바닥에 깔려 신음하는 불가촉천민의 일생은 햇살보다는 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 비와 햇살을 버무려 무지개를 피워내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신도 버린 사람들>에 눈물겹게 전개되고 있다.

마하르의 한 사람인 다무(본래 이름은 다모다르 룬자지 다자브)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비교적 일찍 깨우치고 카스트 제도를 부인하며 인간 존엄운동을 펼친 암배드카르의 추종자가 된다. 그는 막노동과 철도회사의 직원 등을 전전하며 무지개 뜨는 인생을 갈구한다.

그에게 내리는 비는 차갑고 냉혹했지만 가끔씩 당면하는 햇살은 행복했다. 그래서 다무는 비도 마다하지 않고 일터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다. 햇살이 내리쬐면 그 햇살의 축복을 흠뻑 받으며 행복해 했다.

다무의 삶에 가장 큰 햇살은 암베드카르의 정신이었다. 그 정신에 따라 마하르의 삶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깨우치고 그 정신에 따라 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고귀한 삶을 열어가기 위해 자기 생에 최선을 다 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몸부림친다. 그러나 힌두교의 전통을 개혁시키는 길은 하늘과 땅을 맞바꾸는 일 만큼이나 어려웠다.

마침내 수많은 마하르들이 암베드카르의 주동하에 불교로 개종을 한다.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결정지어준 종교에서 인간의 평등과 일체 만물의 평등을 가르치는 종교로 신념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인간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신도 버린 사람들>은 다무와 그의 착한 아내 소누가 살아 온 궤적을 회고담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이 부부의 삶은 곧 현대 인도 사회에 그려진 마하르들의 슬픔과 고통 분노 그리고 꿈의 자화상이다. 암베드카르의 정신이 마하르들에게 어떻게 녹아들어 어떤 힘을 길러주었는지도 현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후반부에는 다무와 소누의 아들인 나렌드라 자다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신도 버린 사람들>의 저자이며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나렌드라 자다브. 미국 인디에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인도 중앙은행 수석보좌관, 국제통화기금과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문과을 역임한 그의 이야기는 마하르의 자식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출세했는가를 말하지만 그 속내에는 부모의 개혁적인 삶이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과정을 담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인도로 떠난 스님의 여행 일기



나마스테
지묵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나마스테'는 인도의 인사말이다. "안녕하세요" 내지는 "귀의합니다"의 뜻. 인사말이란 것은 인도를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듣는 말이란 의미다. 지묵 스님은 인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숱하게 인사 했다. 지금 나는 안녕한지 지금 나는 제대로 귀의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으며 성지를 누볐다. 델리에서 시작된 스님의 여행은 다람살라, 스리나가르, 날란다, 구시나가르등을 거쳐 캘커타에서 멈춘다. 그러나 그 멈춤에서 또 다른 여행은 시작됐다. 수행자로서의 삶을 참되게 이어가려는 각성이 새로운 여행의 출발이었다.

한 한국인 사문이 부처님의 땅 인도의 성지를 기웃거리며 느낀 숭고한 가치들이 정리된 일기. 이 책이 처음 나온 것은 17년 전이지만 지금까지도 찾는 사람이 있어 개정판을 냈다. 인도로 가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책이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는 증거일 것이다.

임연태 기자

체질별로 정리한 건강 지침서



생긴대로 먹어야 건강하다
조성태 지음
샘이 깊은 물 펴냄 | 1만원

'형상 의학'의 권위자인 조성태 원장(아카데미한의원)의 건강 지침서다. 1만 3500가지로 사람의 체질을 나누는 형상의학의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타고난 신체조건에 맞춰 사는 지혜를 일러준다. 건강에 있어 왕도는 따로 없고 '생긴 대로'가 답인 것이다. 자신의 생활 습관과 생각 체질 등을 '생긴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자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유의점들과 개인의 체질에 대한 점검 등이 후반부에는 비만, 어지럼증, 불면증, 음주, 산후몸조리 등이 실렸다.

함께 나온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신체조건에 따른 질병의 가능성과 대응방법 등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됐다.

임연태 기자

엄마랑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부처님 이야기



정말 멋져. 누가?
박선영 글 | 강병호 그림
민족사 펴냄 | 9800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바보수준은 아닌' 이현이의 엄마 박선영씨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란 것은 잘 알지만 성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접할 기회는 다른 성인에 비해 더 적다.

그래서 박선영과 강병호 부부가 나섰다. 아내 박선영씨는 불교신문 신춘문예에서 동화에 당선된 후 <여성불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 강병호씨는 각종 만화 공모전에 당선 입선 경력이 화려하고 <올빼미 서당>등 책도 여러 권 냈다. 이 부부가 두 아들 이현이와 다현이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해 주듯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기 위해 불교동화에 몸과 마음을 던졌다. 포교의 의무나 작가로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부처님은 어떤 걸 가르치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부처님을 통해 바르게 사는 길을 안내하고 싶다는 것이 욕심이라면 욕심이다.



이 부부의 용기 있는 출발에 민족사가 동반자로 팔을 걷었다. 그간 무거운(?) 책들만 펴내온 민족사가 처음으로 동화책을 낸 것이다.

<정말 멋져. 누가?>는 부처님의 생애를 아주 편안하고 쉬운 이야기로 꾸몄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태자시절, 출가, 고행, 성도, 첫 설법 등의 일대기가 이어지고 부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졌다. 엄마와 이현이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려준다. 중간중간 양념삼아 배치된 아빠의 만화도 책읽는 재미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정진	월호	랜덤하우스
3	고마워요 자비명상	마가	불광출판부
4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9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10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 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 10권 : 105,000(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8월 전국 법문은 여름수련회의 법융선사 심명 법문으로 대신합니다.
서울 법회는 9월 2일(日)열립니다.
* 서울선원 ☎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9월 9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반야심경/9월 16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생활명상서]
명상 그 무른눈의 지혜
– 다양한 명상법과 수련방법 안내 –
고목 지음
신국판 276쪽
₩10,000
(주)불미르아이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的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 등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수시모집 - 맞춤씩 개인지도 2개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자연의 건강한 맛에 빠져보세요 원주참생식 2개월분 80,000원
건강에 행복을 더한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검은콩, 검은깨, 검은쌀의 영양 원주흑선식 2개월분 80,000원
100% 국산콩을 선별하여 만든 원주청국장분말/환/된장 분말 1kg 20,000원 환 1kg 25,000원 된장 2kg 20,000원
원주스님이 보증하는 히말라야 석정 1kg 300,000원

무상사 현진암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관조 스님 作 '오보'.

일초 스님 日서 범패 · 작법무 시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과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 스님을 비롯한 이수 · 전수생 30여명이 7월 27일 재단법인 일 · 한 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일본 동경 쓰끼지 혼간찌 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범패 · 작법무를 시연했다.(사진)

이번 공연은 지난해 4월 일 · 한문화교류협회로부터 인천무형문화재인 범패 · 작법무를 시연함과 동시에 일본 궁중아악단의 전통 아악을 함께 공연해 양국 전통예술의 한마당을 펼쳐보자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

이날 공연은 일본의 궁중아악단의 전통 아악 시연에 이어 범패 · 작법무인 종성과 영산회상 짓소리를 시작으로 명발 다게 사다라니 오방잡 운심게 법고 천수바라 등을 선보였다. 1만여 관객이 관람한 이번 공연의 호평으로 (재)일 · 한문화교류재단은 매년 8~9월 중 정기 공연과 전 일본 투워 공연을 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대초원의 삶 · 죽음 · 자연

'觀照'

국립청주박물관은 9월 30일까지 박물관 내 청명관 기획전시실에서 '관조스님' 유작 사진전 '몽골초원과 유목민의 삶'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조스님이 1999~2006년 몽골을 오가며 찍은 사진 3천여 컷 가운데 몽골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80여 컷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는 관조스님의 문도대표인 승원스님(백련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 국립청주박물관의 전시기획을 이해하고 관조스님이 수년간에 걸쳐 촬영한 몽골사진을 흔쾌히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작년 11월 20일 세수 64세, 법랍 47세로 입적한 관조스님은 14세에 범어사에서 출가해 17세인 1960년 동산스님으로부터 사미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1965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으며 1973~1974년 해인사 승가대학 제7대 강주를 지냈다.

관조 스님은 '觀照' 라는 법호가 나타내듯이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사물과 자연을 관조하며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무언으로 전해주는 독특한 참선과 포교를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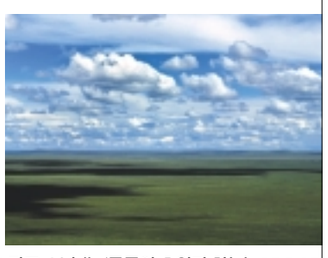
또한 부산 범어사에 머물며 독학으로 사진기술을 익힌 관조스님은 1980년 사진집 <승가1>을 시작으로 <승가2> <열반> <자연> <수미단> <대웅전> <생멸 그리고 윤회> 등 많은 사진집을 발간했다. 특히 2003년 펴낸 <한국의 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국립청주박물관 강원표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 작품들중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대초원과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 그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 줄 것"이라며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몽골의 자연과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박물관은 8월 18 · 25일 청명관 강당에서 '몽골의 음식문화' 등에 대한 초청 강연회도 열 예정이다.

(043)255-1632

김주일 기자


관조 스님 作 '몽골 어린이들'.


관조 스님 作 '몽골의 초원과 하늘'.


관조 스님 作 '나담축제'.


관조 스님 作 '암각화'.

한국 불교 위상 패션쇼로 승화

해인사,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등재 기념 문화축제

우리나라 성보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한복 패션쇼와 클래식 산사 음악회가 함께 열린다.

경남 합천 해인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칠월칠석에 맞춰 마련하는 '2007 비로자나데이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이 비로자나 축제는 현존최고목조불상인 쌍둥이 비로자나불을 기념하기 위한 것. 해마다 이 벤트를 마련해 특색 있게 꾸며진다. 칠석날 하루 전인 8월 18일 해인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팔만대장경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 등재 결정 기념 축제다. 그래서 콘서트와 공연, 관객 체험

강부자 · 이보희 등 대거 출연 클래식으로 구성된 음악회도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한복 패션쇼와 산사음악회로만 구성된다.

큰 주제를 보면 단순하지만 출연진을 찬찬히 살펴보면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하는 메머드급 패션쇼를 빰치는 규모다.

탤런트 강부자 · 이보희 · 윤정희 · 류태준 · 정겨운 · 신동미 등과 인기그룹 클래지콰이, 파이니스트 박종훈, 테너 김남두, 소프라노 박정원, 명창 김영옥 등 스타급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축제의 1부는 김혜순 한복 패션쇼다. 드라마 '황진이'와 영화 '천년학' 등에서 의상 담당을 한 디자이너 김혜순씨가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의상들을 선보여 우리나라 전통 한복에 새 미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무대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함께 가야산을 지키는 아름답고 기품있는 여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가 산문(山門)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환란을 이겨내기 위한 왕과 왕비, 비빈(妃嬪)들의 정성을 담은 기원행렬이 이어지고, 그 정성으로 팔만대장경이 탄생하게 되며, 이후 태평성대를 맞는 과정이 다양한 의상과 함께 소개된다.


지난해 열린 해인사 '비로자나축제' 모습.

2부 산사음악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60인조로 대편성된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비제의 '카르멘' 서곡을, 피아니스트 박종훈씨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가야금 4중주단 여울이 Fly me to the moon, 소프라노 박정원씨가 '축배의 노래' 등을 잇달아 선사한다. 행사의 진행은 前 MBC아나운서 였던 최현태씨가 맡는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의 전통미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불교의 위상을 재 확인해 볼 수 있는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리허설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055)934-3000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⑲

간월도 간월암

장인성 시인

갯바위에 홀로 앉아
빗방울에 젖어드는 간월암을 건네본다.
원종일 스피커를 받쳐들고
반야심경을 읊어대는 팽나무가
절집을 지키는 수좌승 같다
빗줄기에 촉촉이 젖어드는 바다를
갈매기가 비잉 돌다 되돌아간다.


간월암(看月庵)-만공선사께서 간월도 해변가에 세운 복된 도량이었으나 지금은 쇠락의 기운이 짙어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4. 마음 가지고 오너라

달마와 전법제자인 혜가(二祖慧可 487~593)와의 선문답이다.

달마 대사에게 혜가가 물었다.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혜가가 다시 물었다. "제 마음은 편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래,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편안케 해 주지."

"마음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네 마음에 이미 진정한 평화를 주었네."

(<선문염송> 제3권, 100칙 '법인')

이것이 우리의 사유를 끝없이 비상시켜 고독하게 하고 동시에 황홀하게 하는 현제 조사선의 전등, 그 시작이다.

이 선화를 살펴보면, 제1조 보리달마 2조 혜가로 이어지는 부정적이며 역설적인 선문답의 전형이 된다.

혜가가 애써 찾고자 한 마음은 자성인 참마음(眞心)이 아니라, 수초와 같이 일렁이는 진심의 응용인 마음인 것이다.

'참마음'은 생각하는 대상 아닌 주체 그 자신
선시의 '反常合道' 솜씨 능수능란하게 사용

바깥 경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는 깜박이는 마음을 찾은 것이다. 자성인 진심은 늘 고요하며 어디든지 그대로 있다. 진심의 변화는 없다.

이 참마음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 그 자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자 한다든가 어떻게 하고자 하면 이미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변화하므로 참마음일 수 없다.

그래서 진심이 진체(眞體)다. 곧 마음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습니다"(覓心了不可得)라고 한 대답에서 이미 혜가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 마음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바깥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참 마음인 자성을 찾았음이 아니라, 자성과 영회된 순수진공 상태의 행위로 다음에 이어지는 "네 마음에 이미 진정한 평화를 주었네"(與汝安心竟)하는 달마의 말을 듣는 순간,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되어 활연돈오(豁然頓悟)한다.

위의 선화에 대하여 뒷날 한 선장이 읊은 게송을 읽어보자.

2조가 소림에 서 있던 날
二祖當年立小林
뜰에는 눈이 쌓여 허리에 닿았었네
滿庭積雪到腰深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叉手當胸無一事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마음마저 편치 않았네
不求不覓不安心 –죽암규

위의 게송에서 3행은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를 연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 가슴 졸인다. 특별한 일이란 바로 평상심에서 벗어난 마음의 작용이어서 진짜로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다음 4행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마음마저 편치 않았네"는 '반드시 구하였고, 찾았고 드디어 마음이 편하여졌다'의 역설적 반어법이다.

찾아서 마음이 편하여진 것은 본래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 진여자성을 찾은 것일 뿐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구하고 찾아야 다소 위안을 얻게 되니 마음이 편하다'로 읽혀지나 사실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으며, 마음이 편해지려고 해도 편하지 않다' 함은 바로 자성인 주체와 꼭 맞게 포개어 만난다(領會)는 뜻이다.

곧 일체의 진리를 안과 밖을 꿰뚫어 봄이니 이렇게 표현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당착적인 모순적 어법은 선사들이 이원적인 상대세계에서 그들이 보았던 일원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주된 선시의 모순적 수사법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것을 비틀고 돌이키고 융화시켜 다른 수승된 일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곧 선시의 반상합도(反常合道)의 솜씨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더 심원한 세계로 몰아넣기에 족하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⑭

밤 미시령
고형렬 | 창비 2006 | 6천원





불교적 제재로 빚은 한폭의 그림

고형렬은 1954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1979년 <현대문학>에 '장자' 등이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청봉 수박밭> <해청> <사진리 대설> <성애꽃 눈부처> <김포 운호가든집>에서와 장시집 <리틀 보이>, 동시집 <빵을 들고 자는 언니>를 발간했다.

그는 최근 시집 <밤 미시령> 후기에서 "나의 시들은 나의 시의 징검돌이 되기를 꿈꾼다. 기호와 메타포로 가득한 세계에서 나는 아직 시의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시력 30여년이 되어가면서 '시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시인의 고백은 시의 경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시인들을 대신하여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전 시집들에서 불교적 제재를 시에 끌어왔던 고형렬은 <밤 미시령>에서도 '개금불사' '청화' '젖' '나옹' 등의 불교 제재 시를 등재하고 있다.

불단에 이렇게 씌어 있다. "부처님 복장을 해야 하므로 잠시 고깔을 씌워드렸습니다." 새로 순금을 입힌 부처님은 화상을 입은 듯, 손금도 눈도 지워져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듯. 고깔을 벗겨드리려면 이달 29일이 와야 한다.
숨소리 없는 한지 속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소년은 숨 다 뱉어내고 아버지 곁에 불어 합장을 했다.
아주 오래된 부처님도 휴가시다. 문밖 400년 된 느티나무에서 매미 울음이 여름을 찢는다. 세상이 환해질 눈 창의 날 아직 남았다.
– '개금불사' 전문

시인은 강화도 전등사에 갔다가 개금불사 중인 부처님을 만난 경험을 한 폭의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하얀 한지 고깔로 가려 놓은 부처님 얼굴을 보고 세상이 다 돌아가신 것 같았다고 부정적 감정을 확장하며, 새로 순금을 입힌 부처님이 화상을 입거나 손금과 눈이 지워져 성한 곳이 없다고 대상을 부정적으로 비유한다.

대상을 부정적으로 언술하는 것은 독자에게 감정의 충격을 더하기 위한 시적 방법이다. 개금불사 기간을 오래된 부처의 휴가 기간으로 보는 시인의 발상이 새롭다.

'청화'는 오십 육년 간 하루에 한 끼 공양을 하며 수행을 한 실제 인물을 제목으로 한 시다. 화자는 "하루 한 끼만 받고 궁금했던/ 그대 작은 신발, 만지고 싶다"고 하여 석가가 열반한 며칠 후에 장례식에 도착한 제자 가섭에게 정진을 하라는 의미로 보여주었던 발을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 시는 고려의 선승 '나옹'을 제목으로 하여 쓴 시다.

승복을 벗고 목락도 버리고
저 자라고 싶은 대로 놔둔
머리카락과 수염 어느새 백발
쪽박 찬 저 거지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소
공양을 받으며 만인을 내려다보며
내 두드린 목락은 순 거짓이었소
오늘 천천히 보니
저 하늘에는 그늘이 없구나
그저 푸른 하늘만 사태사태 가득할 뿐
눈이 시릴 뿐
그만 그 하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곤 광 문을 닫고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구려
이 세상 좋다는 것 다 버리고
오늘 눈을 떠 보니
어리석은 자는 저 앞에 혼자 절뚝이며
두 목발로 걸어오고
간신히 새 한 마리 그늘을 달고 날아가는
맥 푸른 하늘 속
비명으로 질러 날아가는 파란 그늘 하나
줄기세포 사이로의 끊처럼
거기 그의 작은
발목이 살짝 보였다오.
– '나옹' 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⑭국수원밥숭이

오늘은 스님들이 너무도 좋아해 입가에 미소가 띤다는 '승소(僧笑)', 즉 국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국수는 BC 6000~BC 5000년경에 이미 아시아 지방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국수를 만들어 먹었으나, 밀의 생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음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메밀국수나 밀국수는 특별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삭발하거나 목욕하는 날 흔히 만들어 먹었습니다. 스님들 대부분이 발우 한 가득 거뜬히 먹을 정도로 국수를 좋아해 '승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매우 좋아해 '僧笑'라 불려
칼국수는 여름·냉면은 겨울철 별미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면 요리에는 온면(국수장국), 냉면, 비빔국수, 칼국수, 콩국수 등이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백면(白麵, 메밀국수)을 가장 으뜸으로 쳤다고 하고, 국물은 꿩고기를 삶은 육수를 썼습니다. 여름에는 동치미국과 양지머리 육수를 섞어 식혀서 만든 냉면을 만들어 먹었고, 사찰에서는 냉면 대신 흰 콩과 흰 깨를 갈아서 만든 콩 냉국에 밀국수를 말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나 북쪽의 사찰에서는 메밀가루와 녹두녹말을 섞어서 반죽해 국수틀에 가늘게 뽑아서 만든 국수를 썼습니다. 수질이 좋은 사찰에서는 약수를 떠다가 간장으로 간을 하고 국수를 말아서 먹기도 했는데,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육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익혀서 양푼에 넣어 종이처럼 얇게 굳힌 다음, 가늘게 썰어 오미자즙에 타서 먹는 창면 또는 화면(花麵)이 있었고, 여름에는 참깨를 볶아 갈아서 그 국물에 국수를 말아먹는 '토장녹두화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북한 사찰음식은 칼국수와 가래떡, 밥이 한 그릇에 담기는 '국수원밥숭이'입니다.



국수원밥숭이

재료 : 밀가루, 간장, 가래떡, 쌀밥, 애호박, 석이버섯, 표고버섯, 다시마, 무, 깨소금, 참기름

만드는 법

① 표고버섯, 다시마, 무를 넣어서 센 불에 끓이다 약한 불로 천천히 달여 국수물을 만든다. 간장으로 간을 해 둔다.
② 칼국수는 뜨거운 물에 반죽을 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숙성시킨 다음 곱게 칼국수를 썰어서 가래떡과 함께 국수장국에 넣어서 한소끔 끓인다.
③ 애호박을 채 썰고 석이버섯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잘 손질한 다음 곱게 채 썰어서 참기름, 소금, 간장으로 간을 한다.
④ 떡과 국수를 그릇에 보기 좋게 담고 그 옆에 쌀밥을 담은 다음 애호박과 석이버섯을 고명으로 올려 낸다.

옥천 대성사 칠월칠석 선남선녀 만남 특별법회 봉행

2007년 8월 19일 오후 2시 선남선녀 인연맺기 칠월칠석 특별법회









1) 박영학 전 옥천교육장 초청, 부처님 인연법과 만남을 주제로 강의
2) 만남을 위한 발원문 낭독
3) 커플 만들기 특별이벤트(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송원자)
4) 선남선녀 함께 하는 데이트
5) 캄보디아 국제 결혼 설명회
6) 참석자 전원 혜철 스님 수필집 2,3권 및 테잎·영상CD 제공

전국 선남선녀 회원 대상으로 봉행
남자 회원 '꽃바구니' 준비 (여성 회원에 전달)
여자 회원 '향·초' 준비 (부처님전 공양)
회원 가입: 옥천대성사 (cafe.daum.net/dasungsa) , 옥천대성사 홈페이지 (dss.or.kr)
대성사 (043)732-5560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4~6,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점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행자/학인모집
나는 이곳에 가야한다 수행을 걸쳐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여래종금강대약사사
www.yaksasa.com
031)734-3205
043)731-2261
010-9292-4828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참선 및 영어방 안내문
◆장 소 : 길상사 ◆교육기간 : 4년
◆개강일시 : 2007년9월10일
◆정 원 : 5명 교육비, 침식 무료
◆교육대상 : 40~55세 미만의 비구니스님
◆회화중심 : 초보자 가능
◆수 행 : 참선, 일상언어:영어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1리 441번지 길상사
문의 041)541-7240~1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 학인모집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10-3928-0006
051)558-8830~1

새로운 포교 나눔의 봉사
신비의 효험봉침 수강회원
위빠사나 명상, 상담과 심리요법
기초교리 예불 예절 요가
봉침<법침>요법 및 미용요법 강좌
명상봉침요법 지도포교사 수료증
*불교명상 봉침 대체의학연구협회
원효불교교양대학 유마사
마산 055)247-5652

세계최면치유연구소
부산,경남,전국 최고!!
전생체험, 빙의제거!
실습위주의 최면전수
저서 : 최면치유법
051)803-7208
www.choimyun.com

도성사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재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 개인지도 가능)
전법스님 합장
033)747-6819
010-7443-3060

연화석예석재(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
567-1260
전송 031)551-1500.
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청암(靑巖)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홈페이지/동영상제작
인터넷 이곳에 가면 해결!!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법문 법회 촬영
인터넷불교TV방송
www.CBC108.TV / www.CBC108.co.kr
011-356-3427
02)837-2003

불교 마음수련원 가을수련안내
팔공산 묘적암 마음수련원에서 가을수련생 및 회원을 모집합니다
사바의 심,신의 고통 및 병고에서 진정한 해탈을 원하는 출,재가자
• 개원식 : 2007년 11월 24일(음10.15)
◇ 평생회원 · 일반회원 ◇
문의 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마음수련원

속 명
김학수 스님
백중기도관련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구 마천동 소재 길상사
02)409-0108
019-9373-3535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우리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054)972-9933
017-503-350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의통이 열려 원인 모를 병, 두통,위장병,피부병,디스크, 정신병,불면증,히스테리 등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50세 처사입니다
활인구제가 필요하신 사찰이나 같이 동업하실 인연있는 보살 기다립니다
017-566-7227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
043)297-8728

조용한 산사에서 신심있는 처사님 모십니다
(1종 면허소지)
055)863-4143
011-392-688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60세)
▷강원도 산속
033)482-3382
(법륜종 상운사)

종무소 여직원 구합니다(30~40세)
부전(비구)스님 모십니다
042)272-1223

부전스님 모십니다
스님 되실분 인연 기다립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숙식제공)
018-587-2363

기도하며 계실분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60세전후)
011-758-1819
054)654-7030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금 월80만원)
경남 밀양 삼랑진
010-4851-505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47-112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참신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054)748-353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혼자계심
가족처럼 지내실 분
숙식가능하신 분, 출퇴근 가능
▷마산시내
055)241-232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서구
051)248-6646
011-563-4180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5~60세)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달마사
010-9755-8988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포교원을 원합니다
세수 60세, 법납 40년 맡겨주시면 무보시로 큰 원력을 세우겠습니다
010-3131-1094

공양주 및 기도하면서 절 관리할 보살님 원합니다
▷경북 김천
054)437-1898
010-4611-189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대중포교 친견 고민 끝!

"효 사 육 임 복 변 집"

비싼 것 같으나 매우 싼 것임을 겪게 됩니다
(부록 · 설명 활용 CD 포함)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간단히 보아 적중 활용되도록 해 놓은 고도의 육임 활용서가 나왔습니다 -

『이 육임활용서는 저 효사「육임래정비법」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 · A3용지 크기 2종류)하여 **① 왜 왔는가? ② 어떤 정황인가? ③ 형이상각법**(작사귀 · 병귀의 침범여부 및 그 명칭, 부정빌미 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산소탈 망자 육친여부 · 산소탈 이유 · 산소탈 후손재해 · 산소탈 묘지경관 · 산소탈 묘지물형좌 · 산소탈 묘지속상태 · 위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각각의 해소지침) **④ 국수당면운세판단 ⑤ 천지반 띠별 나이별 길흉 ⑥ 묻는 목적사 23항목별 성부 ⑦ 1년 월별 신수 ⑧ 원전육임직지요결** 등 매일 육임 15개 대법칙, 54분류항목, 150여 항목 1,800여칸 마다 또박또박 그 답들을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최대로 보장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칸**과 표시된 **해당국수칸**만 주-욱 **보고서 보듯 지적하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이있게 될 것입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 능동적 육임활용 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으며 이로서, **방문시간 전에 올사람의 전후 사정을 미리 구석구석 파악하여 할 말을 예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 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담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드려둡니다.

좋은 육임을 여러 여건상 학습하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저의 열정과 소신을 마음껏 담았습니다. 안심하고 앉아서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복자 **효사** 배상

▸주 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권, 각일치 독립제본, 하루 1권씩,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입 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 예금주:육임나라(주)
농 협 1700338-56-155880 / 예금주:김나형
▸대 금 : 250만원
(100만원 입금후 3개월 분할가능 · 카드결제가능 · 교환 할인 접수는 마감 됨)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과의 교환 접수중 입니다

육 임 나 라(주) www.taoetmple.net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Ⅰ · Ⅱ · Ⅲ 와 교환 접수중 입니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82㎡(25) 목조
- 요사 : 217㎡(66) 목조
- 부지 : 891㎡(270) 목조
- 가액 : 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79㎡(24)목조
- 요사 : 130㎡(462)
- 부지 : 18975㎡ (5750)
- 가액 : 20억

- 위치 : 경남
- 법당 : 99㎡(30)
- 명부전 : 660㎡(200)
- 요사 : 396㎡(120)
- 부지 : 3960㎡(1200) 외 국유지 4950㎡(150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 1,530평+밭550평
- 120년 역사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정남향 토목공사 완료)
- 관리지역 7,000평
- 가액 : 4억원

- 위치 : 부산시내 최고의 도량 산세좋고 계곡물 철철
- 부지 : 12,700㎡(3,800평) 100% 사용가능
- 법당 : 45평 요사채, 산신각, 기타 등
- 가액 : 70억

※부산 서부권
낙동강 자락이 도량을 휘감고 김해 넓은 들판의 풍요함,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가 뚜렷한 산세 도심 최고의 명찰터에 회양의 기회를 드립니다.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5천~2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80평
- 법당 : 40평(2층)
- 요사 : 40평(1층)
- 가액 : 2억 8천만원
- 특징 : 도심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 대전광역시 소재
- 법당 : 50평(방3개)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600만원
- 특징 : 사적공원에 위치한 도심포교당임 (대구,일산에도 같은조건의 포교당 있음)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약 2000평, 법당 2, 방 9, 교육관(큰방1)
- 특징:기도성취 대불<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12억

016-9757-5608/033)257-7124

사찰안내

- 위치 : 김해 대동면
- 부지 : 30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스님방 등
- 도로접 주차가능
- 가액 : 은행안고 2억 5천
- 부산시내 암자 100평 5억

※부산,경남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신속처리 비밀보장)
부산경남 연산공인 010-2460-3366

웰빙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논산시(대둔산 인근)
- 임야 7만여평의 청정계곡에 참나무 찜질방과 포교당을 겸한 웰빙사찰터 (팬션별장도 가능),
- 가액 : 보신 후 결정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017-405-1554
(주인직거래)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수산부락
- 지목은 전(관리지역) 지적은 406평, 230여평 각 토지당 거리 30m
- 특징 : 단성IC 10분거리, 서울에서 3시간, 부산에서 1시간20분, 진주에서 20분 고속도로 산청 휴게소에서 5분 위치적상에 조경수 다수(소나무 등)
- 가액 : 적정싯가 쌍방절충

011-835-7889 (이남촌 합장)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새벽시장 입구. 3층 60평
- 스님방, 공양주방, 후원, 주방 시설완벽
- 불사관계로 부처님 불화만 모셔갔음
- 법당, 불단완벽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007-5235
018-557-524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 명상센터,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대가람사찰,휴양지펜션 납골당 조성 터 (급) 안내

- 영천시 임고면. 대구에서 45분거리 (산세가 수려한 영천댐 인근)
- 임야 : 9만평 ● 지방 2차선
- 평당 1만5천원(절충가능)

016-510-6774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총 60평(4층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는 절충 시설비 2천만원 시설은 최상급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함

055)338-13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대지 91평, 법당 26평
- 요사 1,2층 20평(합 46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 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055)372-0123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 방2개, 법당1, 거실
- 평수 : 30평
- 가액 : 1억3천만원

※스님불사관계로 안내함
043)288-9149
011-482-914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42)825-3020

사찰터(급)안내

- 전북 남원 천하명당 절터 남원역에서 10분거리
- 건축물 없고 대박예상 확실함 2,013평(평당 6만원)
- 꼭 투자하실 분 연락 (가격절충없음)

011-804-1748

사 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춘양에서 15분거리. 해발 600고지 주위 경관이 아주 뛰어남
- 사찰, 별장, 고시원, 팬션, 다용도 활용가능
- 전 400평,대지 200평
- 주택 30평,창고 15평 1동 실사용평수 1만평
- 도로 포장 집 앞까지 완료
- 가액 :6억 5천만원

054)673-6496
010-5400-6670

자비사 수양원 안내

- 법당 15평, 요사채 40평
- 산신각 4평, 화장실 2, 방7 넓은 자갈 주차장, 각종 밭 1천평
- 특징 : 3개 마을 대부분 박씨 문중 땅
- 1년 도지세 15만원 (문중사실 확인서 있음) 2천만원 올 수리 (찜질방 같은 문화시설)
- 가액 : 5천5백만원 (공주 신원사 주차장 옆)

010-2606-1299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 천하절경 명당터 양쪽 계곡 호수 접함
- 조립식 임법당, 차고, 창고
-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905평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0-2033-904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 1만여평 부지,전답 10여동
- 사찰연역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2.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7-373-59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4호선 당고개역 3번출구앞
- 3층건물 중 2층
- 평수 : 25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31-7994
011-797-682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석불상 안 내

- 해수관음상 9자, 하대 4자 1200만원
- 오석 아미타불 4자 좌대 2자 800만원
- 석가모니불 4자반 520만원
- 국내산 석불상

018-456-63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 양재역 1분거리
- 3층 건물 중 3층,최적의 요지 역학포교원으로 적합
- 보증금 1500만원/월10만원 (시설비 포함)

02)2057-7535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 근교
- 대지 : 106평, 건물 30평
- 임법당, 석가삼존불, 신중칠성, 산신탱화
- 가액 : 5천만원

011-9373-6620
043)542-4981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구 합 니 다

- 사찰 전세 및 월세
- 부산, 울산, 창원 등 경남지역

010-8676-2896

사찰(급) 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문수사
- 총평수 1700평 중 허가면적 540평
- 건물 : 요사채, 산신각 포함 약 100평

※현재 공사중, 스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급히 양도함
※공사총액 약4억 소요되었음 답사후 가격절충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470평, 법당 30평, 산신각 2평 , 요사채 30평, 10평짜리 독채 있음
- 심야전기, 조경시설 완비 앞 계곡, 창건한지 2년
- 가액 : 3억3천만원

016-274-3170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부지 : 약11,500㎡ (3,500여평)
- 지목: 전
- 천하명터, 소백산 준령이 한 눈에
- 가액 : 상담 후 절충 가능

011-582-42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위치좋음:큰길옆)
- 건물 : 상가 빌라 1층(약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7000만원

016-403-0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402평, 임야 30평 (실사용평수 약 600평)
- 대웅전 33평,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 석탑,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7억5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기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건물 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영동 IC에서 20분거리
- 대지:300평 건물 4동 임법당
- 시설일체 완비, 산세수려하고 물좋은 수행처

043)543-7928
010-6472-792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유명한 바닷가 공원 3분거리)
- 대지 : 74평(건평 약20평)등기 필
- 주차가능, 텃밭있음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불
- 시설 깨끗함
- 집기 시설비 일체 3천5백만원

011-402-16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가격절충가능) (1억5천 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보살, 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0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수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주택 사업장 풍수지리 건축설계

賀堂 하당풍수건축

즐겨찾기 www.haadang.com

행복은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으나
풍수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풍수건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풍수건축은 위치, 형상, 방위의 자연과학입니다.
국내최고의 정확한 풍수건축학맥인 하당에서
행복의 집을 설계하세요.

하당 임병윤 올림

하당공인중개사

36만평 공장부지 양도

관리지역 청주인근 청원군 옥산면 평당12만원
큰 사업장 공장부지 적지 (사진은 홈페이지에)

043)293-2400 / 011-491-9225

준비-대응-구호 절차따라야

'긴급재난구호활동 지침서'로 본 재난재해 대비 요령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만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약 17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불교계에서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0년간 재난재해 구호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서 <긴급재난구호활동지침>을 펴내고 전국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각 사찰들이 종단의 재해대책본부와 연계해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계종복지재단, 긴급재난구호활동 지침서 발간 배포
단계별 주의사항 · 봉사자 투입 시기 등 일목요연하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구본사와 사찰, 신행단체들의 신속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구호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사진은 수해로 훼손된 주택을 복구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왼쪽)과 봉사활동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중앙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

국내외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조계종은 총무원 부 · 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피해지역 관할 교구본사 주지를 위원으로 참여케 해 중앙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비' 단계에서는 폭풍 · 호우 · 대설주의보를 살피고, 기상경보가 발효되는 '준비단계'에서는 피해 상황과 정보를 수집한 후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결성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재난구호본부를 가동하고 선발대를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언론과 홈페이지, 본 · 말사 및 교계 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선다. '구호단계'에서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한 후 재난구호 의연금과 물품을 전달한다.

▷피해지역 교구본사의 역할

피해지역의 교구본사는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를 구축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해 중앙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숙박,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에서 전달되는 물품의 전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구호에 필요한 인력, 장비, 중장비 투입 규모를 가늠하고 통신망을 구축해 원활한 구호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해 둔다.

▷사찰 및 신행단체 역할

일반 사찰과 신행단체는 중앙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지침을 확인한 후 구호활동에 나선다. 신도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모집했을 경우 중앙대책본부에 전달한다. 물과 휴지, 세제, 버너, 부탄가스, 의류, 식품 등 응급지원용품을 파악해 중앙 대책본부에 요청한다. 재난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는 생수와 쌀, 이불, 라면, 버너 등이 있다.

구호물품을 준비할 때 재고물품이나 하자가 있는 물품, 우유 등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 냉장 · 냉동식품 등은 삼가도록 한다. 보일러나 에어컨 등 설치하는데 전문기술이 필요한 물품도 적합하지 않다.

▷자원봉사활동의 실제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으로 나갈 경우 체계적인 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호활동 자원봉사를 원하는 불자들은 상황발생 후 5일 이내에 봉사신청을 하면 현장정보와 봉사지역, 행동지침, 숙식, 교통편, 봉사단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봉사신청을 하거나 구호활동에 필요한 후원 및 물품 접수를 할 수도 있다. 봉사활동의 내용도 근로봉사(구호물품 정리 및 배분, 급식, 청소, 세탁 등)와 기능봉사(집수리, 도배 등) 의료봉사(의료상담, 무료진료) 전문봉사(인명구조, 통신, 전기, 중장비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침을 전달받고, 안전대책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차량 및 숙식에 대한 정보와 상해보험가입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는 독립적인 행동을 금하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본인에게 전달된 장비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몸에 이상을 느낄 시에는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상황실로 연락한다. 활동이 끝나면 활동사항과 개선점, 반성할 점 등을 기록으로 남겨 이후의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재난 발생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펼쳐야 할 봉사활동 내역이 달라진다. 재난 발생 1~2주에는 인명구조와 주택 내 토사제거, 가구 및 집기세척, 급식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3주에는 산사태로 인한 붕괴지역 복구와 주택정비가, 4주에는 상가 집기정리와 농산물 건조, 도배 · 보일러 설치 등의 봉사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다. 시기별 필요 물품도 달라진다. 피해발생 첫째 주에 이재민들에게는 식료품과 이불 등 응급지원용품이, 봉사인력에게는 장화 · 장갑 · 세제 등의 장비와 도시락, 음료수가 필수적이다. 2주부터는 컨테이너하우스와 밑반찬, 가전제품, 의료와 구호에 필요한 중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02)723-5101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류 문화속의 茶

45. 차(茶) 운동

60년대 이후 실시된 경제발전 계획으로 도시와 농촌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조가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방식은 혼재되어 전통문화의 부재를 낳았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서양문화의 상징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지식인과 상류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전통 녹차를 마시는 풍속은 더욱 더 쇠퇴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전통문화 부흥정책을 펼친다. 1978년에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 국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교류를 통해 문화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차인들은 단체를 결성한다. 사회 곳곳에서 차에 대한 강연과 다례(茶禮)시연을 하는 등 80년대 초 차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차 관련 전문 잡지를 발행하여 차의 역사, 효능, 차 음식, 다서 등의 내용을 다루는 등 차 문화 보급을 위하여 차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차 생활 예절 보급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고 국내외 차 문화 교류를 시도한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차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개발 14가지 품목 중에 녹차가 선정되는 등 음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는 차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순화하고 동작을 순하게 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보급 구체화
80년대 녹차 산업화 시작되며 홍보 활발

수정 계획안인 문화정책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회복 정책으로 전통 다도(茶道)의 종합적인 보급시책이 구체화된다.



차와 다구전문점(80년대, 인사동)

문화공보부는 다도 보급시책으로 차 문화유산의 중요성, 차와 국민건강, 차와 정신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 관계 자료를 정비한다. 차산지와 재배지 조사, 동호인별 · 계층별 · 지역별로 다도의 특징을 조사한다. 차 관계 전문잡지 발간을 독려하고 신문과 방송에 의한 홍보, 공공기관, 일반 직장에서의 다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초 · 중 · 고에서는 차 우리기와 마시기, 예절 등 다도 교육을 실시한다. 고궁, 호텔 등에 다실을 마련하여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공부에서는 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기(茶器)를 대량생산하여 가격을 낮추게 한다. 농수산부에서는 차 재배 농가를 지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제다(製茶) 기능공을 양성하기도 한다.

는 힘이 있어 국민들의 정신 순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정신과 행동의 순화는 사회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부터 정부의 녹차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자체 다원을 조성해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무료 시음회, 다례교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매주 차 소식지를 발행해 사원들에게 녹차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당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녹차의 맛은 숭늉 같기도 하고, 떫은맛이 나고 때로는 풀 냄새가 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차를 마셨고, 차 맛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80년대는 정부 시책으로 차가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차 운동이 펼쳐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녹차가 우리 전통음료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차는 삶에 여유를 주는 음료로 인식되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一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木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月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경문 · 한문반
◆학기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정원 : 15명 ◆강의 : 金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학기 : 2008년 3월 – 2009년 2월
◆정원 : 15명 ◆강의 : 水요일 오후 2시
*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입종하시는분께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드립니다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문 의 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40%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파격 할인 판매!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할인가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정가 1만3000원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아냈다. 또한 전법 현장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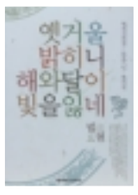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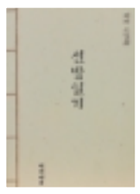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서옹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를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지음

정가 6000원 →할인가 3600원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서.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개-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키듯, 남전의 고양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신고 등 46편의 글을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꾹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시(禪詩)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 허응당 보우 - 선의 마음 시의 마음,청허당 휴정 -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 -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02)737-0695 book.buddhapia.com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농협〉 053-01-269062

아! 위대한 5,343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金剛經



▶사진에 있는 금강경병풍보다 실제 작품이 훨씬 뛰어납니다.

• 특별보급가 : ~~5,000,000~~ ▶ 2,100,000원
10폭 병풍 (폭넓이 : 44cm / 높이 : 5자2치) ※선착 35점 한정 판매합니다.

서예작가 정담스님이 열폭 병풍 5,183字 금강경 작품1점을 45여일 시간에 걸려 정성스럽게 쓴 작품입니다.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소지할수 있게 대승불교의 핵심인 장엄한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에 한 점씩 소장하십시오. 영원불멸의 재산가치가 될 것입니다. 生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스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정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삼불사 금강불교문화연구원
전화 : 051)806-0316 / 휴대폰 : 011-488-0316

【서예작가 廷潭스님 약력】
·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동양철학석사
· 2002년 대한민국 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0주년 중국산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금강경)
· 2003년 출발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등 전 작품 출품 북경공예미술 대학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삼채상 수상)
· 2002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 저서 : 命理學 재미있는 우리 사주 / 姓名學 바로 이 이름 / 사주에 모든 길이 있다 등 다수
· 한국불교 1,600년사 불교TV 서예 공로상 수상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 (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 (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 (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불기 2551년 丁亥年 8月 27日 우란분절 7월백중(하안거해제) 미타재일을 앞두고 사찰이나 불자님들 가정에 대승불교의 핵심 금강경 병풍 하나씩은 두시어 49제(천도의식)이나 조상님들의 제사를 올리세요.

금강경족자, 백복도에 이어 서예작가 廷潭스님이 동진출가하여 30여년간 꾸준히 써온 금강경을 열폭 병풍으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1 法會因由分(법회인유분)에서 마지막 제32 應化非眞分(응화비진분)까지 흑지에 찬란히 빛나는 금분으로 5,183字 金剛經典(금강경전) 한자 한자에 심혈을 기울여 직접 써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21세기 최고급 작품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금강경은 우리 인생 삼라만상에 대한 실상을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살아가는 삶의 진실을 밝히시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밝은 마음 살림살이를 우리들에게 몽땅 털어놓으신 경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무한한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 마음속의 음달인 재앙과 업장이 소멸되고 우환이나 번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16 能淨業障分(능장업장분) 업장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데는 금강경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제8 依法出生分(의법출생분)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도 모두 이 金剛經에서 나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제, 천도의식, 참선, 기도, 염불, 경전공부 등 불교교리의 거대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오랜세월 화엄경을 끌고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80생에 팔만대장경 49년을 분류해 보면 아함부 12년, 방등부 8년, 반야부 21년, 법화부 8년 합해 49년입니다.

불교중심의 핵을 이루는 금강경은 반야부 21년 여기에 속하고 600백권의 방대한 반야 사상 경전에 금강경은 제 577권에 해당됩니다.

금강경은 불교 교리를 거대한 수미산 산맥에 비유해 볼 때, 그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 길중에서 바로 질러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깨달음의 길이 금강경입니다. 金剛般若波羅密經은 부처님의 八萬大藏經 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生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廷潭스님의 마지막 작품 금강경 병풍을 이번 기회에 한점씩 소장 하십시오.

금강경을 독송하기 어려우면 사구계(사행시)라도 지녀 외우면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큰 공덕을 짓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성불한다고 설하셨습니다.

◎ 제일 사구게 : 如理實見分 (여리실견분) 제5
凡所有相 (범소유상)
皆是虛妄 (개시허망)
若見諸相非相 (약견제상비상)
卽見如來 (즉견여래)

◎ 제이 사구게 : 莊嚴淨土分 (장엄정토분) 제10
不應住色生心 (불응주색생심)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應無所住 (응무소주)
而生其心 (이생기심)

◎ 제삼 사구게 : 法身非相分 (법신비상분) 제26
若以色見我 (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 (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 (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 (불능견여래)

◎ 제사 사구게 : 應化非眞分 (응화비진분) 제32
一切有爲法 (일체유위법)
如夢幻泡影 (여몽환포영)
如露亦如電 (여로역여전)
應作如是觀 (응작여시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전자의 대덕 스님네들의 말씀을 응용한다면 예전에 덕산(德山) 스님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설봉(雪峰) 스님은 제자로서 공양주를 하셨고, 암두(巖頭) 스님은 대중을 이끄는 분이었고 또 덕산 스님은 조실로서 계셨는데 아, 사시마지가 지나도 종을 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을 울리지 않고 하니 바리때를 들고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덕산 스님은 바리때를 들고서 오온(五蘊)의 법계(法界)를 위로나 아래로나, 일체제불과 중생이 다 같이 공양하고 그릇을 비워가지고 막 돌아서는데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무슨 소릴 질렀느냐 하면 "늙은이가 종도 안 울리고, 북도 안 치고, 목탁도 안 쳤는데 바리때를 들고 어슬렁거리느냐." 이러거든요.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오고 가는 그 그림자만 보고 말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설봉 스님은 또 암두 스님한테 '저 늙은이가, 그렇게 악을 쓰니깐, 그냥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니까, 빽! 악을 쓰면서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아, 말후구(末後句)를 몰랐구나!' 그 늙은이가 말후구를 몰라서 그랬구나! 이랬으니 얼마나…. 이것은 한쪽에서는 눈이 멀고 한쪽에서는 귀가 뜨이지 않았어. 그 소릴 듣고 그렇게 하질 말았어야지, 지혜가 있다면. 귀는 띄었으나 귀가 띄지 못했어. 눈은 떴으나 눈이 뜨이지 못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화두 삼아서, 사구를 화두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은 방편으로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래도 효자가 그것을 함정에 빠진 걸 건졌다고 했으니 이거는 대덕을 너무나 자기네들이 함정에 빠트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건지고 농락을 했다 이 소립니다. 얼마나 농락을 했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는 예전에 대덕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네가 덕산 스님이라면 설봉이 그렇게 했을 때에 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냐? 요거 한 가지를 일러봐라." 이렇게 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암두 스님이 말후구를 몰랐구나 하는 거를 또 한 가지를 일러봐라" 했을 거고, 그게 천칠백 공안(千七百公案)에 다 들어 있다, 이 소리겠죠. 그거는 의당 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천칠백 공안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화두고, 모두가 공안 아닌 게 없는데 말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천지를 말하고, 칠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사는 이 자체를 보고 칠백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뜻을 보고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도 삼혼칠백(三魂七魄)이라고 그러죠, 죽었을 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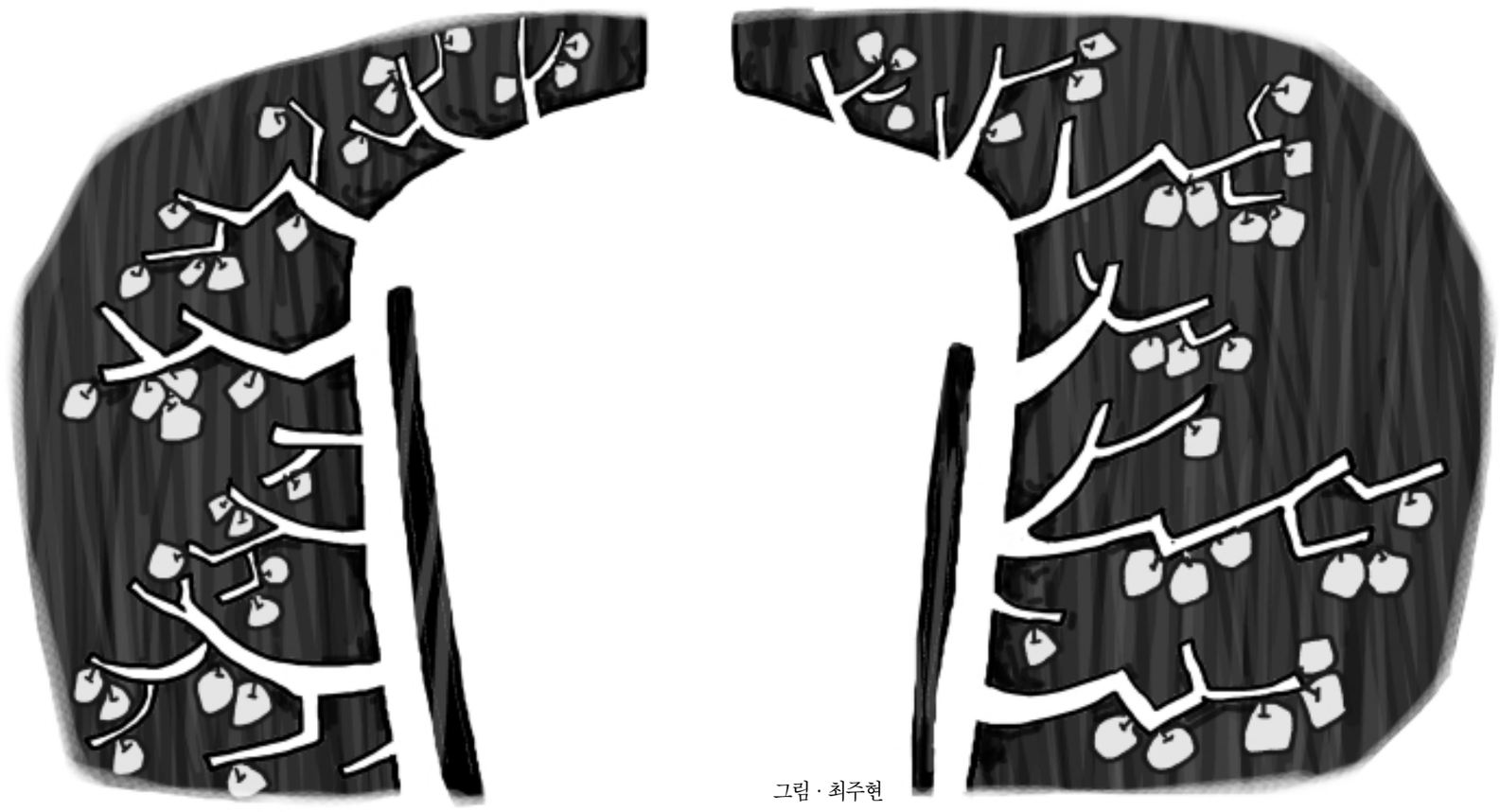
그건 그렇고, 또 "암두 스님 들어오라고 해라. 이놈이 그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놈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들어와서는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하니까는, 그냥 끄덕거리고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건 또 뭐며, 또 그 이튿날 설법하시는데 예전보다도 더 찡찡하게 설법을 하시고선, "삼년만 있으면 내가 죽노라." 했다니 그 삼년은 어디에다 둔 말씀이냐, 이걸 일러라.

이래서 우리가 천칠백 공안 속에 들어있는 이 자체를 다 '말없이 이를 수도 있고, 말을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도 대답 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그 공안의 이치를 알라.' 하는 것을 내놓은 것인데, 아, 그렇게 설법을 하시는데도 또 암두 스님은 "야! 우리 스님이 이제는 말후구를 알았구나!" 그러고선 손바닥을 쳤다니 말입니다. 내가 이것이 벌써 서른 안짝에 들은 소립니다만 참, 이 모두가 생각을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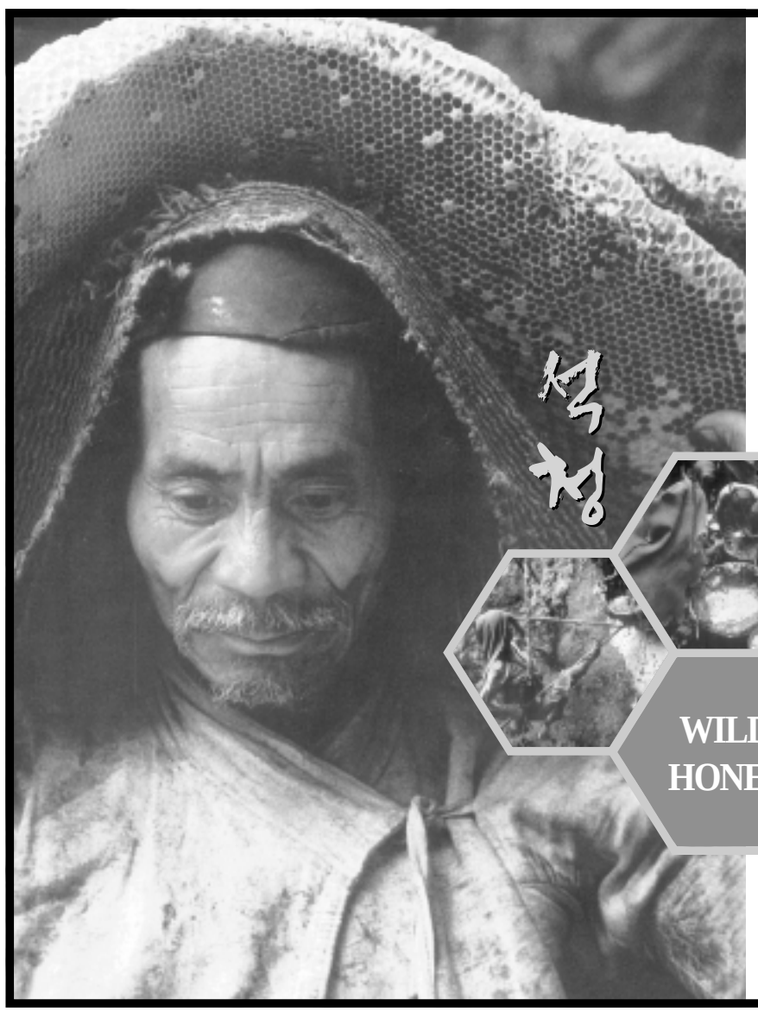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쳐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무슨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허허,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면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맛이 날 수도 있는가 하면 만 가지 맛이 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면 한 가지 맛이나 낼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가지곤 아니 돼. 이 천칠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야,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이 많아도 말 한마디도 아니 하고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무시무시하게끔 땅속이나, 물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나게 하고 말이야, 괜히 차분한 사람을 그냥 신경질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그냥


그림 · 최주현

☞22면으로 계속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이 공부하는 데는 좀 늠름하고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21면에서 계속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집을 비워놓았기 때문에 딴 놈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걸 알고 절대 그러지 말라 이거야. 속지 말고. 그러나 '주인공! 만 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놈이니까.' 하고선 용광로에다 넣는다면 거긴 그냥 한 놈밖에 없어. 그 한 놈도 여러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 놈도 한 놈이란 말을 못하리만큼 돼 있지만 말야.

그러니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 내가 가난을 면하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고, 자손들을 잘 두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어.

젊은이들 중 아직 어린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릴 잘 듣고 잘 해야 돼. 낳기만 하면 자식인가? 자식이 아니지. 인과 업으로 인해서 원수로 만났다면 질그렁질그렁, 만날 화목하지 못하고 이거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나고 복장을 쳐야 옳으니 말이야.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한두 건 본 것이 아니에요. 한 집에 그러니까는 불구가 셋씩, 넷씩 되는 집도 있어요. 다섯 식구가 사는데 한 사람만 남겨놓고 불치의 병을 넷이 다 앓고 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어떠한 공직에서도 도대체 승진이 되질 않아, 자식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공부하는 데는 스님네가 따로 없고 속인이 따로 없고, 여자가 따로 없고 남자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어.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지만 속의 중생들이 운행을 해줘야 부처가 있지. 자기 부처를 자기가 형성시켰으니 자기는 운행을 해줘야만이 그 부처가 자기와 더불어 같이 벗어날 수 있으니깐 말이야.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별성일 수도 있고 혹성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어. 한시도 몸뚱이는 쉬지 않고, 배는 쉬어 놓고도 자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밤이면 기껏 돌아다니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또 움죽거리고.

그러니까 자나 깨나 숨을 쉬고 있으니 시공이 없이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는 과거로 지나간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거름 삼아서 내가 깨친다면 부처님의 그 높은 뜻은 내 몸을 갈아서, 정말이지 내 몸을 갈아서 실을 꼬아 짚신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바쳐도 거기에 다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름 삼아서 내가 만약에 깨친다면 그 부처님과 진짜 둘이 아니요, 진짜 선배 후배가 아닌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만 가지 골짜기에서 한 강으로 물줄기가 다 흘러드는데, 똥물이든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다 모여서 여여하게 마다하지 않고 흐르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와 용은 그저 들락날락 자유스럽게 놀고 있더라. 그것은 어떠한 연고인가? 한번 일러보시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들락거리고 자유스런 그 용은 오백 비구를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석존마저 죽였노라. 이것은 또 무슨 연고냐? 대답해 보실 분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예전엔 천칠백 공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많았죠. 어느 스님께서 조용히 산등성이의 돌 위에 가서 떠억 앉아있으려니까 어느 노승이 지나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자네, 앉을 때가 옳은가, 앉았다 일어날 때가 옳은가?" 하더랍니다. 그러니깐 "앉고 서고 그런 게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하니까 "허허, 그래! 그러면 솥에 넣어서 푹 삶은 자갈은 물렀겠지?" 하거든. '솥에 넣어서 푹 삶은 자갈은 익었겠지.'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경이라는 경은 다 봐도 그런 문구가 없어. 그 스님을 찾으려고, 경을 다 버리고 찾으려고 애써도 이름도 성도 묻지 않은 것도 실책이고, 그 스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동짓날이 됐더랍니다. 동지가 됐는데 마당에다 큰 솥을 걸어놓고선 팥죽을 쑤고 있거든. 팥죽을 쑤면서 큰 주걱으로다가 휘휘 젓거든. 그런데 그 팥죽이 벌렁벌렁 끓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아이구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스님 찾았습니다, 스님!' 이랬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소리를, 그 대답을 못한 스님이나 그 말씀을 하고 간 스님이나 둘이 겠습니까? 무슨 까닭에 그걸 보고서 (손바닥으로 법상을 쳐 보이시면서) "아이구, 찾았군!" 했는가 말입니다. 그 팥죽 끓는 걸 보고서 그 솥 안의 돌이 말랑말랑한 걸 알았겠느냐 이 소립니다.

천칠백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것이 화두 아닌 게 없고, 어느 것이 법 아닌 게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안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다보니까 단전이다 명상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딴 데로 나가고 있어, 기껏 가르쳐봐도.

본래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응아!" 하고 나왔으면 그게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화두입니다. 어느 어린애든지 나올 때 "응아" 하고 소리 안 지르고 나오는 애가 없어. 그리고 물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애가 없고.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야! 그럼 갈아야지! 그게 화두라. 내가 난 게 화두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생활하는 것이 참선이야. 일분일초도 끊어지지 않는 참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는 게 참선이야,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한 구멍에서 나니 두드러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더라.

여러분은 날더러 "스님은 경전에 있는 심오한 뜻은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만날 저런 얘기만 할까?" 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솥 안에 넣고 그 솥 안의 자갈은 말랑말랑하게 익었겠지?" 한 거는 뭐며 팥죽을 쑤는 걸 보고선 (법상을 치시며) "아이쿠, 이제는 익었구나!", 돌이 익었다 이거야. 돌이 그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은 살려놓고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을 살려놓고 미지의 저승세계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얘길 하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리를 다 알고서야 산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행할 수 있고, 똑바로 자비를 베풀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모르고서야 어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며, 길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는 여러분의 눈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밥은 내가 대신 먹어줄 수 없지만, 그 밥을 먹게끔 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자기가 해 먹어 봐야 해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해 먹을 수 있는 물리를 틔어주게끔 해줄 수 있지요.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내줄 수 있는, 하나가 돼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광력 · 전력 · 자력 이런 게 다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뭐, 만담하는 식이게요. 그건 소용없는 거라. 어느만큼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느냐? 그만큼 둘이 아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그만큼 네 아픔과 둘이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내 몸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거기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고 그만 그치겠습니다. 산 사람 앞에서는 절을 한 번을 하고요, 죽은 사람 앞에는 두 번을 하고 부처님한테는 세 번을, 삼배를 올립니다.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자기란 놈이 일할 때마다 착착 나와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게 돼. 그렇기 때문에 행도 같이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로.

어느 시골 선비가 대원군한테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는 꼭 뭐나 할까 하고 간 거는 아니에요. 가서 며칠을 기다려서 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말입니다, 본척만척한단 말입니다. 절을 하는 걸 봐야 될 텐데 본척만척하고 본 둥 만 둥 했거든. 그래서 또 한 번 했지요. 아, 그랬더니 그냥 야단법석이 난 겁니다. "저놈이 산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한테 하듯이 절을 두 번씩이나 했다. 저놈 잡아 족치라."라고 하니까 "어이 휴!" 그 시골 선비가 웃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이 소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좀 늠름하고, 지혜 있고, 좀 더 인내가 있고 탄평(坦平)해야 돼요. 아주 복잡다단하면 안 되죠, 느긋하고. "아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도 바쁘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절을 하고 또 재차 절을 한 까닭은 앞서는 들어온 절이고 이건 나갈 절인데, 헤헤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원군이 가만히 생각하니 냅다 그냥 (손바닥을 서로 부딪쳐 보이시고) 맞았단 말입니다. 한 방 얻어걸렸단 말이야. "아, 그렇게 급하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 일을 하십니까?" 했거든, 시골 선비가.

그러면서 싱그레 웃고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대원군이 한 대 얻어맞고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하인더러 "저 사람 불러들여라." 불러들였거든, 허허허. "너 이놈! 내가 번연히 다 아는데, 내가 보지 않았을까 하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한 거는 분명한데, 네놈이 너무 침착하고 대담한 걸로 봐서 한번 할 놈이야. 그러니 원으로 가서 자비를 베풀면서 앞으로 군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대장을 해라." 했답니다.

그래서 절 두 번 하고 참, 글쎄 보지 않았는데도 그만했으면 그대로 그만이지만, 두 번을 했어도 두 번 했다는 걸 그렇게 변명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거 늠름하게 그렇게 대번에 그런 대답 못합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나옵니까, 여간한 사람 쳐놓고는. 그러니 얼마나 그 지혜가 풍부하고 참 늠름합니까, 아무리 시골 선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하여튼 모습으로 태어난 거는 태어났으니깐 그 모습 그대로 행은 하지마는, 좀 더 늠름하게…. 아, 마음이야 뭐 여자 남자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모습은 여자 남자가 있을지언정. 그러니 그저 늠름하게 태연하게 아주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랄 것도 없지만. 아뇨, 공부라고 하기는 오히려 참, 보잘것없는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르는 데 조금도 쉬지 않고, 부처님을 볼 때는 부처님과 둘이 아니요, 형상도 나하고 둘이 아니요, 마음도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어디를 가서 책을 보더라도 어떤 놈이 이 책을 보는가? '주인공아!' 불러놓고 경을 보되 '네가 보는구나!' 하고선 보라고요. 그래야지 만약에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승에 가기 전에 그냥 가는 도중에 그런다면 저승엔 못 들어가요. 문이 막혀서 못 들어가요. 그 마음이 막혀서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칠백 공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천대천세계 어느 것이 화두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안 아닌 게 없어!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니는 것도 내가 가난을 면하는 것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자손들을 잘 두는 것도 모두 내 마음에 달려 있어!

氣功 지도사강좌(3박 4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난치병이 치유된다
통증의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통증 고친다

수련일정 | 68기 : 8월 23일(목) ~ 26일(일)
69기 : 9월 13일(목) ~ 16일(일)

디스크, 협착, 측만, 만곡, 허리통증, 어깨통증, 좌골통, 골반통, 관절통,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자율신경실조증, 불면증, 뇨실금, 수족냉증, 복부비만 등

◆ 물리치료, 약물치료, 척추교정, 침, 뜸, 부항을 통하여 다소 호전되었으나 진전이 없다.
◆ 유명하다는 곳을 다 다녔으나 당시뿐이고 노력해도 치유가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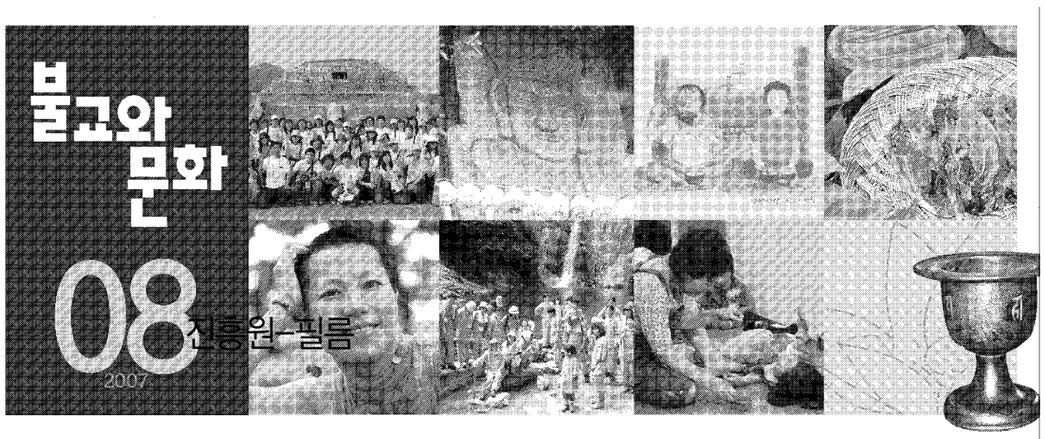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임상시험 인정증 획득!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각지에서 불자님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회 :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 자리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500원 착불)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현장 속으로
1.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고구려 역사 유적 탐방기
2.내소사 트레킹 템플 스테이
연속기획 | 행복 [4] – 실천(수행)하는 행복
괴롭다(苦)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에서의 수행, 수행을 즐기자
사람에 따라 수행방법이 다르다 – 고성염불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내가 행복하다 – 염불 · 절 · 사경 · 음악 수행, 절을 찾는 이유
특별 기고 | 정명 스님의 미얀마 파옥 명상센터 수행기
소설가 정찬주의 명상여행 | 인도에서 만난 팔상록(捨山修道相)
생활불교 가이드 | 우란분절은 무슨 날입니까
신행 365 | 2007 청정운동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연병장에 피어나는 연꽃 | 원주 법흥사
숲길 | 포항 오어사 원효암 가는 길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웃음이 눈물을 말리듯이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서해 제일의 관음기도 도량 석모도 낙가산 보문사
집중 인터뷰 12 | 리케이 댄스 예술감독 이경은
2007 문화기획 |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가야산 해인사 백련암의 상추불뚝전과 상추불뚝김치
시인 윤제림이 추억하는 절밥 | 평생의 도반과 화엄사의 절밥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침향박물관
도쿄통신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연을 누린다, 일본의 정원 문화
향기로운 사람들 | 목농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봉사팀
독자들 세상 | 칭찬합니다 · 가장 행복했던 순간
숫자로 보는 불교 | 거북이가 여섯 가지를 감추듯이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실천(수행)
별지 | 하루에 돌아보는 지역 문화기행 8 / 경기도 화성시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불자 세상보기

신 승 철
클로버 병원장

치매노인은 몸으로 듣는다

노인층 인구가 많아진 탓이겠지만, 근래 들어 노인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에 따른 신체의 자연 노쇠현상, 거기에 더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겹쳐지면, 그 치료가 결코 쉽지 않아서다. 해서 요즘 중풍(뇌졸증, 뇌경색)이나 치매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불구상태에 이르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알다시피 지금은 핵가족 시대. 와병(臥病)상태의 어르신들을 가족이 돌보아 드리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이럴 경우 흔히 가족들은 노인 환자를 노인 병원에 맡겨버리고, 가끔씩 문병을 오곤 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정 처방을 받고, 집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요양 개념의 병원이 늘어나고, 병원 문턱도 낮아져 입원여건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는 필자로서는 그들 가족과 상담하는 경우가 잦다.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적정치료 여부,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 궁금해 한다. 간단한 상담 후 가족들은 환자와 잠깐 면회도 갖는다. 그 후 대부분의 가족들은 간헐적으로 면회를 올 뿐, 생업에 바빠서인지 자주 면회를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상당수의 노인 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표현력이 부족하고, 생각도 더디고, 모든 게 둔하다.

청력 손상이 심한 환자는 거의 벙어리 신세다. 자발적 보행은 물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 가족들이 와서도 그리 오래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나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방문이 아주 뜸한 노인 환자들을 보노라면 병원이 또 다른 현대판 고려장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가족들로부터의 '자연스런 소외'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의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내 임상 경험으로는 아무리 심한 치매 노인일지라도, 환자를 '무시' 하는 태도는 무지에서 오는 것 같다.

어느 치매환자가 행동과 정서가 아주 소란스러워, 일인 병실로 잠시 옮겨졌다. 간병인도 잠시 바뀌졌다. 한데 '환경'이 낯설어선지, 그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었다.

약물로도 쉽게 안정을 시킬 수가 없었다. 다시 원래 병실로 돌아와 타 환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본래 간병인의 손에 다시 맡겨지게 했다.

힘은 더 들었지만, 다독여 주고 받아주는 행동을 보여 주자 얼마안지나 안정을 되찾았다. 인식 기능이 거의 다 퇴화되고, 어린애 같은 심성으로 자아 통제가 안 되던 노인이 간병인의 친숙한 목소리와 손길이 다가오자 부지불식간에 그걸 느꼈기에 안정을 되찾았던 것이다.

아마 옆에 믿을 만한 친근한 가족이 있었더라면,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더 나은 무언(無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또 하나, 치매환자가 비록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진 못해도, 기본적인 '느낌'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식기능이 아무리 황폐해지고, 감정이 없어 보이는 노인 환자일 경우라도, 감각과 영혼은 살아 있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 봐야겠다는 거다. 생생하게 살아계실 적의 마음은 아니더라고, 담담하게 지켜드리는 태도. 어디까지나 품위 있는 인격체로서 대해주고, 임종을 맞을 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 주어야겠다는 것이다.

말보다 따뜻한 관심과 손길. 포옹도 해주며 손목도 살며시 잡아준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족 상황도 간단히 말로 전해준다. 그러면 치매의 그 어르신은 몸으로 다 알아 듣는다. 그래서 될수록 자주 병문안을 드리는 게 좋다는 것이다. 당신은 여름 휴가동안 병상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 했는가?

불자의 눈

남북정상회담 불교교류 힘 되길

8월 28일, 분단이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히 급하게 마련됐다. 현 정권의 임기가 불과 반년을 남기지 않았고 바야흐로 대선정국으로 흘러가는 시점이다. 이 와중에 급하게 마련된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국내 정치계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경제계는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불교계는 정상회담 발표 이후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쏟아냈다. 종단협의회는 물론 각 종단이 각각의 환영을 표했다. 7년 전의 정상회담이 세운 비석은 '6.15정신'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근본으로 하는 6.15 정신의 실현을 위해 남과 북은 7년간 무슨 일을 해 왔는가 돌아보면 그리 개운하지만은 않다.

남쪽은 여전히 많은 것을 올려 보냈고 북쪽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NLL을 부정하며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개성공단의 생산품이 한국의 백화점에서 팔리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띄었고 신계사 복원 불사가 회향을 앞두고 있다. 주고받는 것의 잇속이 6.15정신의 실현은 아니다. 다만,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남과 북이 공평하게 기울여 왔는가는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불교계의 남북교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힘'이 되는 방향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보나 6자회담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보나 '염려'가 앞서는 정상회담이지만, 6.15정신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리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부산불교거사림회를 배우자

부산불교거사림회가 창립 35년이 됐고 800번째 법회를 앞두고 있다. 한 단체가 800번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법회를 이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소위 '치마불교' '보살불교'가 드세던 시절 "거사불교를 활성화하여 부산 불교계를 번창하게 하자"는 뜻에 공감한 거사 20여명이 시작한 부산불교거사림회. 그 출발에서 오늘에 이르는 줄기찬 정진은 특별한 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간 125명의 스님과 23명의 재가 법사가 이 모임의 법회에 불조의 혜명을 밝혀주었다고 한다. 이로보아 부산불교거사림회는 배우고 정진하는 정혜쌍수의 실천으로 부산 지역은 물론 전국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당대의 선지식들을 모셔 법문을 듣고 생활 현장에서 가장 불자다운 행동으로 자신과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했으니 말이다.

'정법구현 생활불교 대중포교'의 지표는 부산불교거사림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신행단체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를 먼저 읽고 문화를 이끌어 가는 불자가 많을 때 불교는 한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치열한 다종교사회에서 불자들이 구복과 기복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거사림회가 만들어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35년간 거사불교의 버팀목이 되어 온 그 저력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부산불교거사림회를 밴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큰 나무는 그늘도 넓고 열매도 많기 때문이다.

'종교자유' 칼럼

24. 이명박 장로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정치가, 지도자 자격있나

대선의 계절이다. 한나라당의 용호상박도 구경거리이고, 소위 범여권의 지형변화도 관심거리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염원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예비후보 중의 하나라는 이명박 장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행적에 관해서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얘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공인의 '정교분리'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상기시켜 준 '서울시 봉헌' 당사자인데다, 그가 그나마 국민의 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명박씨는 2004년의 서울시 봉헌 사건 외에 지난해에도 부산의 한 광적인 개신교 행사에 보낸 축하 동영상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2006년 6월 4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진행된 'Again 1907 in Busan'이라는 개신교 청년부흥회에서 참석자들이 부산 지역의 사찰을 일일이 거론하며 'OO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몰상식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괴한 개신교 굿거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이가 바로 이명박씨였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쾌해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불자들은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올해 초 천태종 총무원장이 "경제 대통령보다는 화합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배경도 그의 이와 같은 경솔한 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사를 구분 못하고 언행이 경박스럽다면 공인으로서 미덥지 못하다. 게다가 종교적 편견이 심하고 실수나 잘못에 대한 사과에 인색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명박씨는 2002년 7월 서울시장 재직시 월드컵 감독 히딩크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는 그 복잡한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과 사위를 히딩크와 따로 사진을 찍도록 한 해프닝으로 세인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 "몸에 익은 저의 체질과 공직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엄격한 잣대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며 둘러댔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의 처신은 그가 과연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였다.

2005년도에 청계천 준공식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에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었다"고 자랑했고, 세계감리교대회에 대해서도 "전폭 지원하겠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론 못하지만, 관할구청을 통해 인원을 동원해 길거리 청소 등 도움을 주겠다"며 자못 공과 사의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처럼 말했지만, 일반국민에겐 역시 서울시민을 대표하기보다 개신교인을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들린다. 때때로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더 심각하다. 문제의식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오해받을 곳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으며, 오해 받을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실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본인의 의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도자란 원래 그 권한에 걸맞게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2004년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 사건'만 해도 그렇다. 불자들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다 주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마저 "공직자의 특정종교의 확장에 편승하는 듯한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며 공정한 처신을 요청했다. 심지어 한 일간지는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인사를 시장으로 뽑았다니 비감할 뿐이다. 이 시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퇴를 분명히 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강하게 추궁했던 큰 사건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씨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몰랐다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그의 태도에 국민들은 실망이 크다. 모든 종교가 상호존중하고 화합하여 사회의 발전에 힘을 모아도 힘겨운 마당에, 정치가가 자신의 편협한 종교적 성향 때문에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다면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란 국민을 이(利)롭게, 편안(安)하게, 바르게(正) 하는 것이라 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공사(公私) 분별력과 종교 중립성은 사회통합에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선사어록인 <임제록(臨濟錄)>에도 "관불용침(官不用針)이나 사통거마(私通車馬)니라, 즉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사롭게는 수레 · 말까지도 허용한다"고 하여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을 명심하도록 일렀다고 하지 않는가. 또 그 어느 지도자에게도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국민들에게 불쾌해도 참고 견디라고 할 권리는 없다.

최고 통치권자가 되고자 하는 이명박 장로의 그간의 행보가 영 미덥지 못하다. "'짱'을 꿈꾸는 '짝퉁'의 시대"라는 최근 어느 칼럼의 제목이 연상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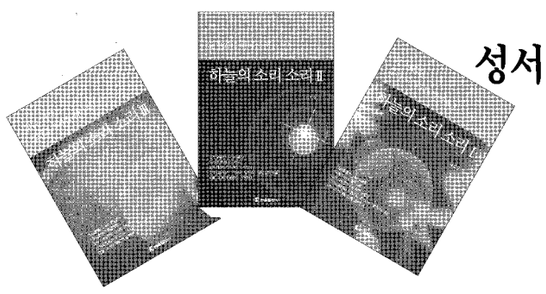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하늘의 소리 소리 Ⅰ·Ⅱ·Ⅲ권

화제의 신간



김성갑 지음 / 신국판
Ⅰ권 336쪽, Ⅱ권 344쪽, Ⅲ권 344쪽 / 각권 10,000원

성서(聖書)의 Word(말씀)
〈수능엄경〉의 관음법문

요가 대수행자의 마지막 수행처 선가(仙家)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단전의 비밀'
오늘, 그 비기(秘記)를 공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백척간두에 진일보' 보다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정견(正見)을 가져야 한다.

불성이 곧 본성(本性)이며 업장소멸 의대한 실체다.

즉각 깨닫는 길

전국 서점 판매중

'간화선의 화두' '남방의 위빠사나'도 아니다.
오직, 묘촉을 만나야 하며 관음을 득해야 한다.
묘촉(妙觸)은 업장의 현주소이며 맑음의 바로매타,
관음(觀音)은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으로
천상의 음악이다.



"좋은 분들께 선물, 감동을 주는 책"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0,000원

신 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 스님/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신국판/양장본/김백만 편저/50,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글로벌작명학의 디자인 — 신국판/양장본/박수병 지음/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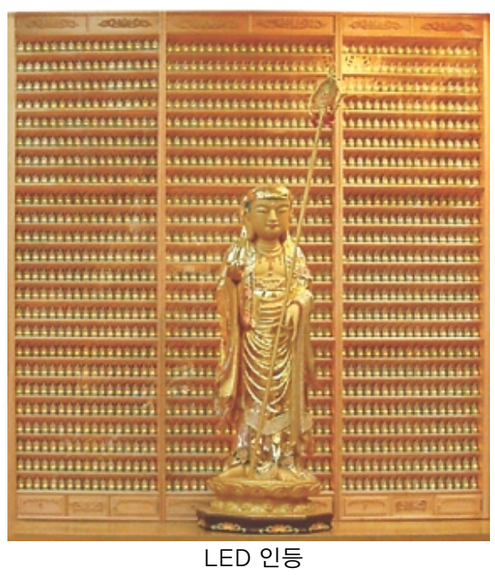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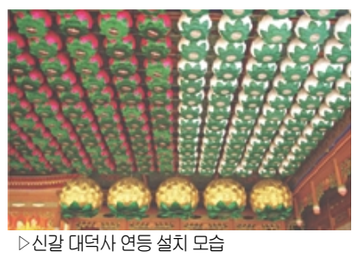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주름등(만월봉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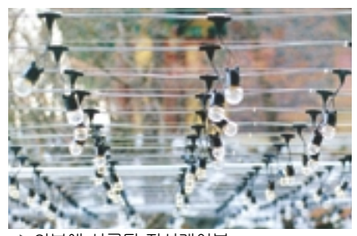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 패드, 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 패드, 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